

고분자 기술이 유전자 치료제로

삼양은
다양한 치료제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로
미래를 주도할
신약을 연구합니다



생활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꿉니다

SAMYANG
SINCE 1924

단기 4358년(서기 2025) 11월 발간

필암서원 산양회보 제43호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 '하서와 함께 걷다' 행사의 선비체험

筆巖書院 山仰會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43호 목차 －

하서 김인후의 시를 통한 전통놀이 형상화..... 2
박명희(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서 김인후선생 선양사업 방향과 제언 29
홍성덕(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장성을 빛낸 한말 의병 38
－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홍영기(한국학 호남진흥원장)

하서와 소쇄옹의 효의 공감장, 소쇄원 44
김경호(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필암서원 산앙회 소식 55

연회비 5만 원만 입금하시면 회원가입 됩니다. (사)필암서원산앙회 계좌(농협 351-1175-2599-63)

社團法人 筆巖書院 山仰會

(57223)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서원로 184
전화 061-394-0833 발행인 필암서원 산앙회 이사장

하서 김인후의 시를 통한 전통놀이의 형상화와 그 의의

박명희(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인간은 살아가며 수많은 놀이를 한다. 놀이는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가며 변모하여 후대에 전승되었다. 동서를 막론하고 전통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역시 수많은 놀이를 했는데, 지금과 완전히 다른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이 많았다. 우리의 전통시대를 살펴보면, 놀이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연중행사로 거행되는 세시풍속 놀이가 있다. 세시풍속이란 1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되풀이 되

는 생활 행위를 말한다.¹⁾ 특히, 세시풍속 놀이는 4대 명절인 설, 한식, 단오, 추석 때 주로 행해졌다. 각 명절 때 주로 하는 놀이를 나열해보면, 설날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을 하였고, 한식은 농사가 막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풍년을 기원하며 제기차기, 그네타기, 갈고리 던지기 등의 놀이를 하였다. 한편, 중국 초나라의 풍속과 연중행사를 기록한 책인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따르면, 한식 때 했던 놀이 중에 투계鬪鷄, 누계자鏤鷄子, 투계자鬪鷄子 등이 있었다. 투계는 닭싸움을 말하고, 누계자는 계란껍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며, 투계자는 투란鬪卵이라고도 하는데, 계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재주를 겨루는 유희

1)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한국의 세시풍속』, 민속원, 2013, 23쪽.

이다.²⁾ 이 독특한 놀이는 중국 뿐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했는데, 이규보李奎報가 남긴 시『양 교감이 한식날 술 마시자고 요청하므로 그의 운을 잇다[次韻梁校勘寒食日邀飲]』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를 적어보면, “살구꽃 만발한 늦은 봄이 되니, 곧 서울에서 투란할 때로다. 술 마시다 불 급하는 줄 몰랐더니, 훈훈한 술기운이 사람을 데우네.[杏花齊拆暮春晨, 正是長安鬪卵辰. 杯酒不知藏火日, 醺醺猶遣暖加人.]”³⁾이다. 승구에서 ‘투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형초세시기』에서 말한 투계를 가리킨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에 쇠는 명절로,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 단옷날 주로 씨름과 그네뛰기 등의 놀이를 하였다. 그런데 이 단오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명절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다. 다만, 중국의 단오는 초나라의 충신 굴원屈原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굴원이 음력 5월 5일에 멍라수汨羅水에 빠져 자결한 날을 단오절로 정해 종자粽子라는 음식

을 만들어 먹고, 특히 경도競渡 놀이를 한다. 이 경도 놀이는 『형초세시기』에도 나오는데, “살피건대 5월 5일 경도를 하는데, 세속에서 굴원이 멍라에 빠져 죽은 날로 그 죽음을 애상하기 위함이다.”⁴⁾라 하였다. 경도 놀이는 용주龍舟 경기라고도 하는데, 그 기원은 멍라수에 빠진 굴원의 시체를 찾는 데에서 유래했다. 결국 그 시체는 찾을 수 없었는데,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 굴원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용주 경기를 한다. 노를 저어 물살이 갈라질 때 고기떼가 흩어지면 물고기가 굴원의 시체를 먹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⁵⁾ 4대 명절의 마지막인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강강술래, 씨름, 윷놀이, 제기차기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다.

이상 세시풍속과 4대 명절에 행해졌던 여러 놀이를 정리하였다. 전통시대 문인들은 이러한 주요 명절을 맞이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면 한시를 통해 감회를 적곤 했는데, 그 작자와 작품 수를 모두 셀 수는 없다. 아울러 세시풍속 놀이를

2) 종름 지음 상기숙 옮김, 『형초세시기』,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72~73쪽 참조.

3)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卷1, 「次韻梁校勘寒食日邀飲」

4) 종름 지음 상기숙 옮김, 전게서, 96~97쪽 참조.

5) 임선우, 『재미있는 중국 풍속 이야기』, 지식과감성, 2018, 252~253쪽 참조.

제재로 해서 지은 시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가 무엇을 대상으로 몇 수의 작품을 지었는지 헤아릴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서 김인후金麟厚(1510~1560)의 한시 작품 중에 전통놀이를 형상화 한 것이 있어 주목을 하게 되었다. 김인후는 31세(1540, 중종35) 때 별시 문과에 합격한 뒤에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34세 때 세자(훗날 인종)를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인종이 왕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승하하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 전남 장성 황룡 맥동으로 돌아간다. 귀향한 뒤에도 여러 차례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고사했으며, 여러 학자들과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제자들에게 학문을 전수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 이후 세상을 뜬 뒤 1796년(정조20)에 이르러 문묘에 배향되며 18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정조는 김인후에 대해 평가하기를 “김하서는 학문과 문장이 당세에 뛰어났으며, 급류 속에서 기미를 보아 원우元祐

의 완인完人이 되었다. 그 절의의 큼과 출처의 올바름은 더불어 비할 사람이 드물었다.”⁶⁾라 말하였다. 원우는 송나라 철종哲宗 때의 연호이고, 완인이란 혼란한 세상에서 목숨과 절의를 온전하게 지킨 사람을 말한다. 곧, 송나라 철종 때 유안세劉安世가 당쟁이 극심했던 와중에도 홀로 정도正道를 지키며 끝내 화를 입지 않았던 것처럼 김인후도 1545년(명종원년)에 일어난 을사사화에서 화를 입지 않았던 것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또한 정조는 “내가 김하서에 대하여 특별히 흠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대저 도학, 문장, 절의를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 자는 오직 하서 한 사람뿐이다.”⁷⁾라 언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조의 평가는 후대 연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김인후의 한시 작품을 바라볼 때 거의 도학과 연결시켜 보려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개별 작품을 들여다보면, 사실 도학과 조금 간극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전통놀이를 형상화한 시가 그러하다. 김인후의 전통놀

6) 正祖, 『弘齋全書』 卷173, 『日得錄』 11, 「人物」, 金河西學問文章 廻出當世 見幾於急流 得爲元祐完人 其節義之大 出處之正 罕與爲比.

7) 『朝鮮王朝實錄』 正祖20년 丙辰 6월 24일, 上曰 予於金河西 別有起慕焉 夫道學也節義也文章也 無一不備者 獨河西一人矣.

이를 형상화한 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찍이 조기영趙麒永은 그의 저서『하서 김인후의 시문학 연구 - 도학적 세계인식과 시적 범주』에서 전통놀이를 형상화한 시 작품 「상사답청上巳踏青」과 「관등觀燈」을 논의한 바가 있고,⁸⁾ 이효진李孝眞은 석사학위논문 「하서 김인후의 세속풍속시 연구」에서 「한식일작寒食日作」과 「상사답청」을 분석했을 뿐이다.⁹⁾ 결과론적으로 두 성과물 모두 전통놀이라는 한 주제 하에 작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김인후가 시를 통해 전통놀이를 형상화한 것에 주목하고, 형상화 양상을 정리한 뒤에 그 의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김인후의 한시 작품은 현재 1,600수 정도 전하고 있다. 그 중에 전통놀이를 읊은 시 작품을 문집에 정

리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격구부擊毬賦」(『하서전집』 권1, 이하 전집명 생략), 「경도사競渡辭」(권1), 「경도競渡」(권3), 「경도시競渡詩」(권4), 「한식일작」(권4), 「상사답청」(권9), 「관격구觀擊毬」(권10), 「관등」(권10) 등 총 8제 8수이다.¹⁰⁾ 이는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작품 1,600수에 대비했을 때 적은 양이라 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작품을 통해 당대 풍속의 일부를 알 수 있고, 아울러 김인후의 문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논의를 모두 마치고 나면 16세기를 살았던 한 문인의 전통놀이를 바라다본 시각과 생각, 이해 등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 趙麒永, 『하서 김인후의 시문학 연구 - 도학적 세계인식과 시적 범주』, 아세아문화사, 1994, 48쪽, 160쪽.

9) 이효진, 「하서 김인후의 세속풍속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8~19쪽, 40쪽.

10) 김인후가 지은 전통놀이 작품 중에는 제목에서 辭賦에 해당하는 「격구부」와 「경도사」가 있다. 이 두 작품을 한시 작품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청나라 사람 姚鼐와 민병수의 언급을 통해서 사부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내는 그의 저서 『古文辭類纂』에서 사부에 대해 “굴원의 『초사』에서 기원한 것으로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시에서처럼 韻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騷, 辭, 七, 賦 등을 여기에 포함시켰다.”라 하였다. 이러한 요내의 언급을 바탕 삼아 민병수는 그의 저서 『한국한문학개론』(태학사, 1997) 326쪽에서 “사부는 그 발달 단계에서 보면 운문이 산문화한 것이다. 이것이 운문과 산문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所以이기도 하다.”라 하였다. 이 두 사람의 언급을 통해 볼 때 사부는 운문으로도 볼 수 있고, 산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격 규정 하에서 김인후가 지은 「격구부」와 「경도사」는 모두 운문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격구부」는 雜言 형식을 띤 한시 작품으로 네 구의 압운이 같고, 「경도사」는 구 중간에 ‘兮’ 자를 넣어 마치 노래를 연상시킨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 전통놀이의 시적 형상화 양상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인후가 전통놀이를 대상으로 읊은 시 작품 수는 총 8제 8수이다. 이를 다시 유형화 시키면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첫째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조선시대의 전통놀이를 읊은 것이 있고, 둘째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중국의 전통놀이 경도를 읊은 것이 있다. 조선시대와 중국의 전통 놀이는 국가를 기준에 놓고 보면 층위가 다르다 말할 수 있으나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작품은 짓게 된 상황이 서로 달라 형상화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필자는 주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 직관直觀과 체험을 통한 사실적寫實的 묘사

김인후는 당시 행해진 전통놀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시를 남겼는데, 「격구부」, 「한식일작」, 「상사답청」, 「관격구」, 「관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들 작품 중에 우선 「상사답청」을 들어본다.

흥이 나서 봄옷을 마련했나니
有興裁春服
늦게까지 노닐어도 무방하네
無妨作晚遊
주공은 굽이치는 물에 술잔 띄웠고
周家觴曲水
진객은 맑은 물에서 시 읊었었지
晉客詠清流
언덕 위 붉은 꽃은 한창 고운데
陌上紅方嫩
들판 풀 푸르러 정말로 나풀거리네
郊邊緣政柔
기수 가에 목욕하던 그 날의 뜻은
浴沂當日意
회상해보면 되레 아득하기만 하다
回想轉悠悠¹¹⁾

이 시는 상사일에 직접 답청 놀이를 한 뒤에 지었다. 상사일은 삼진날 곧, 음력 3월 3일을 말하는데, 이날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다. 답청도 상사일에 했던 놀이 중 하나로, 이제 서서히 봄이 되

11) 金麟厚, 『河西全集』 卷9, 「上巳踏青」

는 것을 만끽하기 위해 산이나 들판에 나가 경치를 즐겼다.

김인후는 수련에서 우선 나들이를 하기 위해 봄옷을 마련했으니, 늦게까지 놀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 말하며, 시간에 구애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어 함련 두 구에서는 과거 주공周公과 진쁠나라의 왕희지王羲之가 삼진날에 했던 놀음을 언급하였다. 제1구와 관련해 『진서晉書』 권51, 「속석렬전束皙列傳」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무제武帝가 속석에게 3월에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마시고 노니는, 즉 유상곡수流觴曲水の 의의를 묻자 속석이 말하기를 “옛날에 주공이 낙읍에 도읍을 정하고 나서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마셨으므로, 일시逸詩에 이르기를 ‘새 모양의 술잔이 물결을 따라 흐른다.[羽觴隨波]’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라 하였다.¹²⁾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바로 ‘우상수파’인데, 새깃 모양으로 된 술잔을 물에 띄워서 잔이 물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차례로 술을 마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2구에서 말한 ‘진객’은 바로 왕희지를 가리킨다. 왕희지는 삼진날 자신을 포함해

총 42명이 함께 난정蘭亭에 모여 굽이치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계연禊宴을 베풀어 시를 지었으며, 그 시집의 서문인 「난정서蘭亭序」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왕희지는 「난정서」에서 말하기를 “이곳에는 높은 산, 험준한 봉우리와 무성한 숲, 길게 자란 대나무가 있고, 또 맑은 시내 여울물이 난정의 좌우에 서로 비치는지라, 이를 끌어들여 굽이쳐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운다.[此地有崇山峻嶺茂林脩竹 又有清流激湍 映帶左右 引以爲流觴曲水]”라 하였다. 마지막에 나온 ‘유상곡수’는 앞의 우상수파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진날 답청놀이를 대변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함련을 이은 경련에서 작자 김인후는 눈에 들어온 삼진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언덕 위에는 붉은 꽃이 피어있고, 들판에는 푸른 풀이 나풀거린다 라고 말하여 흔히 볼 수 있는 봄날의 정경을 언급하였다. 함련에서 과거 사람들의 삼진날 놀이를 말했다면, 경련에서는 작자 주변의 현재 모습을 말함으로써 서로 대비시킨 점이 눈길을 끈다. 마지막 미련 1구에서 말한 ‘욕기浴沂’는 『논어』 「선진先進」편에 나오

12) 『晉書』卷51, 「束皙列傳」

며, 공자孔子의 제자 증점曾點이 언급한 포부이다. 욕기는 공자의 명리名利를 잊고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인후는 이 욕기를 말함으로써 삼진날 답청 놀이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즉, 김인후는 답청의 도도한 흥취를 통해 증점이 유상遊賞하며 성정을 함양했던 욕기와 풍영諷詠에 상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³⁾ 그러나 미련 2구에서 “아득하다[悠悠]”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이번 답청 놀이는 욕기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생각한 듯하다. 한편, 「상사답청」시는 놀이를 형상화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답청에 대한 김인후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의론적議論的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다. 반면, 다음에 보게 될 「관등」시는 「상사답청」시에 대비했을 때 당시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측면이 강하다.

어젯밤 성 남쪽에서 관등 모임 있었으니

城南昨夜會觀燈

술동이 넘실거리고 흥은 유달리 솟아 올랐네

杯酒淋漓逸興騰

연꽃 등불은 새 달 그림자와 닮은 듯 했고

蓮焰似爭新月影

불 켜진 성은 흰 구름 속에 들어간 듯 했지

火城疑入白雲層

별이 막 떨어지니 밤의 바람 이슬 쇠해 지고

夜闌風露星初落

해 뜨지 않아 수레 타고 온 손님들 떠났네

客散輪蹄日未昇

국가는 태평스러워 즐거운 일이 많으니

家國太平多樂事

해마다 좋은 때가 저절로 이어지리라

良辰歲歲自相承¹⁴⁾

13) 趙麒永, 전게서, 49쪽 참조.

14) 金麟厚, 『河西全集』卷10, 「觀燈」

이 시는 관등놀이를 직접 경험한 뒤에 썼다. 관등은 연등(燃燈)을 보다 라는 뜻이다. 연등 행사는 고려시대에는 정월 보름에 하다가, 훗날 2월 보름으로 옮겼고, 다시 4월 8일로 옮겼다. 4월 8일은 석가모니 탄생일로, 흔히 초파일로 불린다. 이 초파일의 관등놀이는 배불정책을 쓴 조선시대에도 휘황찬란하게 놀라운 대성황을 이루었다.¹⁵⁾ 사실 김인후가『관등』시를 지은 때가 1년 중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다. 정월 보름인지, 2월 보름인지, 아니면 석가모니 탄생일인 4월 8일인지 알 수 없으나 큰 행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¹⁶⁾ 다만, ‘성남城南’, ‘화성火城’ 등의 시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인후가 젊은 시절 한양에 머물러 있을 때 관등놀이 장면을 보고 읊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수련에서 어젯밤에 관등놀이 모임이 있었다고 말한 뒤에 그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2구에서 관등놀이 모임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나타내었는데, 술

이 있고 흥은 다른 때에 비해 유달리 솟아올랐다고 말하여 시를 읽는 이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어 함련에서 등불이 어떤 모습으로 켜져 있었는지를 사실적으로 말하였다. ‘연염蓮焰’은 연꽃이 새겨진 등불을 말한다. 이 연꽃 등불이 마치 새 달 그림자와 닮는 듯이 보였고, 불이 환하게 켜진 성은 마치 흰 구름 속에 들어간 듯이 보였다. 비유법을 활용해 연등이 어느 정도로 화려한지를 알려주었다. 함련을 이어 경련에서는 시간이 새벽으로 흐르기까지의 분위기를 말하였다. 새벽이 되어갈수록 밤의 바람과 이슬은 점차 쇠해졌고, 해가 뜨기 전에 수레를 타고 왔던 손님들은 떠났다고 말하여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관등놀이가 점차 시들해졌음을 알려주었다. 이상 수련부터 경련까지는 관등놀이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나타내어 읽는 이로 하여금 실감나게 한다. 다만, 마지막 미련에서는 작

15)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전게서, 271~272쪽 참조.

16) 趙麒永은 전게서 160쪽에서『관등』시를 설명하기를 “정월 15일 마을 거리에서 벌어지는 관등놀이를 바라보며 정겨운 그 정경을 감복한 정감을 노래하였다.”라 말하였다. 즉, 조기영 연구자는 김인후가『관등』시를 지은 시기를 정월 15일로 보았는데, 사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필자는 그 시기를 단정 짓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자 김인후가 관등놀이를 한 다음에 의견을 개陳하여 앞의 여섯 구와 차별화하였다. 곧, 미련의 내용을 보면, 김인후는 당시 상황이 태평스러워 앞으로 미래 역시 희망이 있다고 예견하였다. 앞 단락에서 필자는 “김인후가 젊은 시절 한양에 머물러 있을 때” 「관등」시를 지었다고 말하였는데, 그 근거는 바로 미련 내용 때문이다. 김인후의 이력을 보면, 24세(1533, 중종28) 때 성균관에 유학하였고, 31세 때 문과에 합격한 뒤 벼슬살이를 했으며, 36세(1545, 인종1) 인종이 승하하자 사직하였다. 김인후의 희망은 인종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종이 살아생전 앞으로 보위에 올라 성군聖君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등」시의 마지막 미련에서 보인 생각 역시 인종이 살아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젊은 시절 한양에 머물러 있

을 때” 작품을 지었다고 말한 것이다.

다음 시는 그 제재가 흔하지 않은 작품이다. 바로 격구 놀이를 제재로 한 작품으로, 「격구부」를 대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봄바람 호탕하게 만 리까지 부니

春風浩蕩兮萬里

능수버들 흐늘흐늘 땅을 스치네

綠柳依依兮拂地

호기심 가득 찬 저 공자는

惟公子之好奇

자류마 잡아타고 고삐를 당기네

御紫騮而揚轡

노을을 능지르는 듯 호기를 품고

懷凌霞之逸氣

평지에서 옥 채찍을 휘두르는구나

揮玉鞭於平場

아침 하늘에 밝은 해가 솟아오르자

乘白日之朝出

17) 김인후는 격구 놀이와 관련해 「한식일작」과 「관격구」 등 작품을 남겼다. 「한식일작」은 장편 고체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13~14구에서 “세도가 소년들은 오하마 잡아타고, 공 치니 그 공 튀어 강 언덕 벗어나네. [豪家少年五花驄 驚毬躍出長江干]”라고 읊었고, 「관격구」는 칠언율시 작품으로 “장안의 젊은이들 꽃이 핀 계절 쫓아서, 한가한 날 광장에 말을 뛰어 내리누나. 가볍게 손 놀리니 빠른 번개 나는 듯하고, 몸 뒤집어 급히 받아 닫는 우레 쫓는 듯하다. 천 가지로 기교 부리니 형용하기 어렵고, 백 번 굴러 위험 탈젠 돌아올 걸 생각 않네. 유관을 쓴 나는 멍하니 혼이 다 빠진 듯하나, 장한 마음은 예전 같아 다 없어지진 않았네. [長安年少趁花開 閒日平場躍馬來 信手美輕飛迅電 翻身挑急逐奔雷 千般騁巧難容狀 百轉乘危未擬廻 恨我儒冠多落魄 壯心依舊未全灰]”라고 읊었다. 특히, 두 작품 중에서 「관격구」는 「격구부」와 비슷하게 격구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읊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투어 실기 익히느라 오르락내리락
 爭習技而低昂
 꽃 사이에서 가벼운 채를 힘껏 날리니
 奮輕杖於花間
 둥근 공이 바람 끝에서 뛰노네 그러
 躍圓毬於風端
 처음엔 숙이는 듯하더니 다시 쳐들어
 初如抑而復揚
 이합집산이 어찌 그리 여유로운가
 何離合之閒閒
 던질 적에는 버리듯이 하고
 投之兮如遺
 당길 적에는 거두듯이 하네
 挹之兮若收
 몸이 기울어져도 떨어지지 않고
 身傾側而不墜
 왼쪽으로 던졌다가 오른쪽으로 거두네
 或左擲而右抽
 문득 그칠 듯 하다가 다시 움직여
 歟將止而復動
 아, 민첩하기가 귀신과도 같군
 審揮霍之如神
 아, 가지고 노는 것이 손에 달리어
 羌運弄之在手
 뇌성벽력을 먼지 속에 몰아가누나
 驅霹靂於輕塵
 말은 달려가 쫓으니 나는 듯하여

馬馳逐而如飛
 채찍질 아니 해도 스스로 달려가네
 雖不鞭而自走
 드디어 돌아보고 한번 웃으니
 爰回顧而一笑
 구경꾼들 벌써 한곳으로 모여들고
 已觀者之輻湊
 서로 실컷 보니 팔뚝을 볼끈
 相厭觀而扼腕
 모두 손뼉을 치며 감탄 하네
 舉抵掌而仰歎
 온 세상 재주놀이 만 가지로
 紛技藝之萬端
 모두 평지에서 안정하게 행해지는데
 皆由平而履安
 어찌 유독 기이한 이 놀이만은
 何斯戲之獨奇
 위험스럽게 특이함을 보이는 것인가
 乃乘危而效異
 이윽고 가볍게 나갔다가 교만스레 들고
 既輕進而巧入
 또 몹시 민첩하여 응맹스레 피하여
 又便捷而勇避
 위험한 추락을 걱정할 것이 없으니
 無所虞於危墮
 어찌 몸 부딪칠 염려를 하리오
 豈有慮於激射

몸은 늘 당당하여 두려움 없나니
 身常狃而不懼
 온갖 동작을 한들 그 뉘라 현혹할까
 雖百動其誰惑
 그러나 군자는 그 성을 길러
 然君子之養性
 그 몸을 닦아 천명을 기다리나니
 修厥身而俟命
 위험한 담장을 보면 서지 않고
 觀巖牆而莫立
 항상 편안 데서 살며 바름을 지키네
 恒居安而守正
 애써 음황을 탐해 말기 일삼아
 苦耽荒而事末
 날이 갈수록 이에 치달리면서
 日於是乎馳騁
 심신을 허둥대며 엎어지고 자빠져
 蕩心腑而顛頓
 부모가 남겨준 몸을 해친다면
 殘父母之遺體
 비록 안전해 해가 없다 해도 귀하진 않
 으니

縱萬全無害而亦不足貴
 어찌 화평한 덕의에 큰 누가 되지 않을
 까
 豈不大累於德義之愷悌也哉¹⁸⁾

격구는 말을 타고 재주를 부리는 승마
 예술인 마상재馬上才와 타구打毬가 합쳐
 진 형태이며, 그 연행방식에 따라 마상
 격구馬上擊毬와 지상격구地上擊毬로 나
 뉜다.¹⁹⁾ 이렇게 두 양식으로 나누나 일
 반적으로 격구라 하면 마상격구를 지
 칭한다. 마상격구는 말을 타고 마치 국
 자 모양으로 생긴 장杖毬라는 채를 이
 용하여 공을 쳐서 구문毬門에 넣는 경기
 를 말하며,²⁰⁾ 마치 그 모습이 서양의 폴
 로(polo)와 흡사하다는 의견도 있다.²¹⁾
 격구는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에
 서 처음 발생해 중국으로 유입되었고,
 마침내 한반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언제 한반도에 이르렀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는데, 고구
 려 유입설, 통일신라 유입설, 발해 유입

18) 金麟厚, 『河西全集』 卷1, 『擊毬賦』

19) 강재욱, 「한·중 격구의 역사적 전개와 연행양상」, 『중국인문과학』 제74집, 중국인문학회, 2020, 247쪽.

20)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격구협회 편집, 『한국의 무예(마상무예)』, 국립민속박물관, 2003, 39쪽 참조.

21) 최우영·윤영조·윤영환, 「격구희와 개최공간의 역사적 고찰(1)」,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권 3호, 한국전통조경학
회, 2011, 136쪽 참조.

설, 후삼국 유입설 등 다양하다.²²⁾ 격구는 고려시대에 크게 성행하였다. 고려시대에 무인들은 마상무예를 기르기 위해 격구를 즐겼다. 특히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격구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무관들의 훈련용으로 쓰였으며, 귀족들의 놀이로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왕과 귀족들은 격구를 사열하고 즐겼으며, 상으로 비단, 포목, 돈 등을 내리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격구는 유희적인 특성과 함께 군사훈련에 활용되었다. 격구에 대한 활용도가 커진 시기는 세종 때이다. 세종은 내정에서 종친들과 마상격구를 즐기면서 이 놀이문화를 체계화시켰다. 급기야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상격구를 무과시험으로 채택하였다. 세조 때는 세종 때 확립된 지상격구 방식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지상격구는 봉희棒戲라고 했고, 세조는 봉희를 자주 참관하며 직접 연행하였다. 성종은 직접 격구의 사열에 자주 참여하여 보급에 힘썼으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격구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면서 중종과 광해군 때는 무과시험

에서 마상격구가 제외되기도 하였다. 결국 마상격구는 훈련도감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영조 초기에 단절되었다.²³⁾

이상 격구의 의미와 연행방식, 한반도의 유입과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앞에서 말한 격구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김인후가 생존했을 당시 격구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사적 흐름과 별도로 김인후는 격구 놀이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시 작품으로 남겨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의 작품 「격구부」는 부賦 문체를 빌려 쓴 시이다. 총 46구로 이루어진 장편시로, 1구부터 26구까지 격구하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27구부터 46구까지는 소감을 밝혔다. 즉,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구부터 26구까지 격구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봄날 자류마紫驪馬를 탄 공자들이 호기로움을 품은 채 채찍을 휘둘렀다. 채찍을 힘껏 날리니 둥근 공이 바람 끝에서 뛰어노는 듯이 보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여유로움은 잃

22) 정형호, 「동아시아 격구의 전승 양상과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2010, 255~257쪽 참조.

23) 격구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격구협회 편집, 전계서, 39~41쪽과 강재욱, 전계논문, 248~250쪽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지 않았다. 던지고 당기며 몸을 기울여도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채찍을 왼쪽으로 던졌다가 오른쪽으로 거두었으며, 그칠 듯하다가도 다시 움직여 마치 귀신처럼 보였다. 채찍을 손에서 가지고 노는 모습이 마치 뇌성벽력을 먼지에 몰아가듯이 하였고, 말은 달려가 쫓으니 나는 듯하여 별로도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때 말 위에 있던 공자가 자신감 있는 듯 돌아보고 사람들을 향해 웃음을 보이니 구경꾼들 한곳으로 모여들었고, 공자 역시 구경꾼들을 향해 팔뚝을 불끈하니 모두 손뼉을 치고 감탄해마지않았다. 자류마를 타고 격구를 했다는 것을 보면, 김인후가 본 것은 마상격구라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김인후는 마상격구 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그린 뒤에 27구부터 자신이 느낀 소감을 적었다. 먼저 소감 처음 부분에서 온 세상의 수많은 재주놀이가 모두 평지에서 안정하게 행해지는데, 어찌 유독 마상격구만은 위험스러운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듯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격구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몹시 민첩하게 용맹스레 피하여 위험한 추락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격구 놀이

를 하는 사람들은 늘 당당하여 두려움이 없나니 온갖 동작을 한들 그 누가 현혹되겠는가 하고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출해내는데, 군자는 성性を 길러 그 몸을 닦아 천명을 기다리니 위험한 데를 가지 않으면서 항상 편안한 곳에서 살며 바름을 지킨다 라고 하였다. 곧, 군자의 양성養性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이어 마지막 부분에서 음황淫荒을 탐해 말기未技를 일삼으며 날이 갈수록 그것에 치달리면서 심신을 허둥대며 부모가 남겨준 몸을 해친다면 화평한 덕의에 큰 누가 될 것이라 말하였다.

이상과 같이 「격구부」 작품을 살폈는데, 격구 놀이 형상화 시의 의의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2) 굴원屈原 관련 놀이의 상상적 형상화

김인후는 평소에 초나라의 충신 굴원을 애도하고, 굴원이 지은 글을 읽고서 그와 관련한 시를 지었는데, 「어암잡영魚巖雜詠」 17, 「먹라수의 굴원을 위로하다[汨羅弔屈原]」, 「허중승의 《초사》 물음에 답하다[答許仲承楚辭問]」, 「《초사》를 읽고 진유선의 시에 차운하여 경범에

게 보이고 화답을 요구하다[讀楚辭 次陳惟善韻 示景范求和]」 등이 그 작품이다. 그런데 이러한 김인후의 굴원에 대한 이해도를 이 몇 편의 작품에서 끝낸다면, 다른 문인들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할 수 있다. 사실 김인후는 굴원에 대한 이해를 다른 문인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했는데, 굴원과 관련한 놀이인 경도를 소재 삼아 시를 지었다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앞 1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경도는 중국 사람들이 음력 5월 5일 굴원이 멍라수에 빠져 자결한 날을 기리기 위해 하는 놀이다. 김인후는 이 경도 놀이를 소재 삼아 「경도사」, 「경도」, 「경도시」 등의 시 작품을 남겼는데, 이는 다른 문인에게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라 말할 수 있다. 우선 「경도사」 작품을 들어본다.

나는 목란 배를 타고

我乘兮蘭舟

나는 연잎 기를 싣고

我載兮荷旗

아침에 바위틈 여울 거슬러 가서

龜泝兮石瀨

저녁에는 맑은 물가로 내려온다오

夕浴兮淸澗

한번 가고 안 오는 왕손이 그리워

懷王孫兮去不歸

눈물 쏟아져라 마음 유독 상하네

涕橫迸兮情獨傷

고기비늘로 인 지붕에 용무늬 그린 마루는

魚鱗屋兮龍堂

완연히 저 물 중앙에 있겠지

宛在水兮中央

깊은 대나무 베어 채색실 매어

斫幽篁兮施綵絲

흰 쌀을 가득 담아 제 올리니

羞瓊糜兮爲粳

혹시 정령이 무엇인가 느낌이 있다면

儻精靈兮髣髴

한번 군왕 곁에 오시겠지요

庶一格兮君王²⁴⁾

이 작품은 시辭 문체를 빌려 쓴 시로 총 12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도 놀이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시적 화자가 되어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다. 시적 화자인 나는 목란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연

24) 金麟厚, 『河西全集』卷1, 「競渡辭」

앞으로 만든 깃발을 신고서 아침에 여울을 거슬러 갔다가 저녁에 물가로 내려온다. 여기까지는 1구부터 4구까지의 내용으로 아직까지 배를 탄 까닭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5구와 6구를 통해 내가 목란 배를 탄 까닭을 간접적으로 말하였다. 내가 목란 배를 탄 까닭은 왕손王孫이 그리워서인데, 그 왕손은 바로 굴원을 가리킨다. 즉, 나는 굴원을 만나기 위해 목란 배를 타고 아침에 여울을 거슬러 갔다가 저녁에 내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7구와 8구에서 상상력을 가미해 “고기비늘로 인 지붕에 용무늬 그린 마루는 완전히 저 물 중앙에 있겠지”라고 말하였다. 7구 원문은 굴원이 지은 『초사』〈구가九歌 하백河伯〉에 나온 “고기비늘로 인 지붕에 용무늬 그린 마루이며[魚鱗屋兮龍堂]”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마치 물속 중앙에 굴원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렸다. 굴원의 시신을 찾지 못했으나 상상력을 발휘해 굴원이 마치 물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9구와 10구에서는 굴원을 위해 올리는 제사 풍속을 말하였다. 9구 원문의 ‘채사綵絲’는 단옷날에 악귀나 병마를 물

리치기 위해서 어깨나 팔에 묶었던 오색실을 말한다. 『예문유취藝文類聚』 권 4 「오월오일五月五日」에 이런 기록 내용이 나온다. 굴원이 5월 5일, 즉 단오일에 멍라수에 투신자살한 이후, 초나라 사람들이 그를 슬피 여겨 매년 이날이 돌아오면 죽통竹筒에 쌀을 담아서 물에 던져 제사를 지내곤 하였는데,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연간에 장사長沙의 구회歐回란 사람이 대낮에 갑자기 한 신인神人을 만났던 바, 그 신인은 삼려대三閭大夫라 자칭하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의당 나를 제사 지내 줄 터이니,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다만 항상 그대가 제사 지내 준 쌀을 교룡이 훔쳐 가서 그것이 괴로웠다. 지금 또 나에게 쌀을 주려거든 연나무 앞으로 죽통의 위를 막고 오색실로 묶어 다오. 이 연나무 잎과 오색실은 교룡이 꺼리는 바이다.”라고 하므로, 구회가 과연 그 말대로 시행했다 한다.²⁵⁾ 즉, 구회가 했던 것처럼 『경도사』의 시적 화자 역시 죽통에 채색실을 매어 흰 쌀을 가득 담아 제사를 올리며 굴원의 죽은 영혼이 찾아오기를 기원하였다. 김인후는 『경도사』의 시적 화자를 통해 자신

25) 『藝文類聚』卷4「五月五日」

이 지니고 있던 굴원에 대한 생각을 전달했는데, 상상력을 적극 발휘해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 두 번째로 「경도」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월 5일 이날은 무슨 날이고

五日是何日

왕손이 떡라수에 몸을 던진 날

王孫投汨羅

목란 배에 계수의 깃발 달고

蘭舟結桂旗

넘치는 큰 물결 파도 가벼이 넘어가네

汨濫凌輕波

님을 생각해도 만날 수 없고

思君不可得

밤낮으로 자라 악어들 날뛰다네

日夕驕黿鼉

시름겨워 포구를 바라다보니

悵望愁極浦

물은 푸르고 산은 높고 험하네

水碧山嵯峨

영수가 처음에는 귀하게 보아

靈脩初見珍

연잎 옷 입고 덩굴 띠 둘렀네

荷製帶女蘿

물고 달려 앞장서 길을 인도하며

馳驅道先路

곧은 말로 못 소인을 물리쳤다네

蹻蹻排群邪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할 뿐

忘身只爲國

하늘을 가리키며 다른 마음 없었네

指天心匪他

바른 도는 두루 미치지 않으며

直道果不周

근심 만나 슬픈 원망 많을 뿐이지

離騷哀怨多

강남에서 마침내 머뭇머뭇하니

江南竟夷猶

영로를 산하가 가로 막았네

郢路阻山河

오는 사람 물을 수 없으니

來者不可問

하늘의 도는 결국 어떻게 될는지

天道終如何

얼키고설킨 만고의 생각

蹻蹻產萬古思

눈물을 머금고 공연히 「회사부」 지었네

攬涕空懷沙

지금도 슬픔은 남아있으니

至今有遺悲

멀리서 어부의 노랫소리 들리네

迢迢漁父歌²⁶⁾

위 작품은 총 24구로 이루어진 고체시이다. 24구는 다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구에서 4구까지가 첫 부분이고, 5구부터 22구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며, 23구부터 24구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다. 이는 마치 문장과 대비했을 때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뉘는 것과 비슷한데, 그만큼 형식을 잘 맞춘 작품이다.

첫 부분의 내용은 1인칭 화자가 정도 놀이를 하게 된 배경을 말하였는데, 앞에서 이미 본 「경도사」 작품과 비슷하게 굴원이 목숨을 끊은 5월 5일에 목란 배를 타고 물결 파도를 넘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 부분인 5구부터 22구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굴원이 살아생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을 언급하였다. 특히,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굴원이 화자가 되어 자신이 살아생전에 어떤 자세로 임금을 위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지를 언급하였다. 6구에서 말한 ‘자라 악어’는 당시 초나라의 간신배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말할 수 있고, 9구에서 말한 ‘영수靈脩’는

굴원이 「이소」에서 초나라 회왕懷王에 대해 표현한 말로, 임금을 뜻한다. 이어 11구부터 14구까지 바로 굴원이 어떤 자세로 임금을 위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지를 말하였고, 그 다음 15구부터 22구까지는 결국 자신의 충심이 먹혀들지 않아 근심하고 슬퍼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세 번째 부분인 23구부터 24구까지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화자가 지금도 굴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며, 마치 어부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라고 언급하였다. 어부의 노랫소리는 굴원이 세 번째 유배지에서 죽기 전에 지은 「어부사」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도」시의 시제는 처음 현재에서, 두 번째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김인후가 상상력을 극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작품 「경도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검푸른 초협에서 가는 구름도 끊어지고

楚峽蒼蒼行雲絕

26) 金麟厚, 『河西全集』 卷3, 「競渡」

풍파가 성을 내니 물속에서 용이 근심
하네

龍愁水底風波怒

날 저물자 소상강 우거진 풀은 사람을
괴롭히니

瀟湘日晚草惱人

길손의 혼 남몰래 푸른 단풍나무에서
끓어지네

客魂潛斷青楓樹

가벼운 배 다투어 노 저어 먹라수에 다
다르니

輕舟爭掉汨羅潭

깃발 펄럭이는 배는 빨라 어둔 안개 물
리치네

旗翻船急排昏霧

왕손은 이미 고기 배에 장사지냈건만

王孫已葬江魚腹

원통한 넋 가만히 신령 비에 호소해보
네

冤魂暗訴神靈雨

이따금 택반에서 시 읊는 소리 들리는
듯하니

時時似聞澤畔吟

정령이 황홀하여 사람들 놀래서 깨네

精靈恍恍人驚寤

혹시 깊은 연못에 잠긴 남은 해골 보았
는지

儻見餘骸委重淵

위아래로 찾느라 강을 다 거스르네

求之上下窮涸沔

그대 와도 못보고 그대 가도 못 들으니

君來不見去不聞

들판은 아득하여 저무는 해에 시름겨

워하네

平野迢迢愁日暮

강 위 산 계수는 둥글둥글한데

桂樹團團江上山

강하는 멀고멀어 영 땅 길이 막혔다오

江夏漫漫阻鄴路

물결은 넘실넘실 목란 노 끼고 나가

陽侯汎濫挾蘭櫓

아득한 먼 포구로 가로질러 건너가네

蒼茫極浦橫經渡

뱃전 치며 길게 읊어 「초사」를 노래하

니

扣船長吟歌楚些

한 개의 찹쌀떡으로 정성을 통하누나

角飯一箇通誠素

상영은 비파 타고 풍이는 춤을 추니

湘靈鼓瑟舞馮夷

제수 쟁반에 가득해도 그대 안 돌아보

네

蘋藻滿盤君不顧

고생 마다 앓고 계수 노 부지런히 젓다

가

桂棹勤翻不憚勞

머리 들어 하늘 우러러 때로 한번 부르

짚네

舉首仰天時一籲

어이해 충성과 정직은 세상에서 밀려

나서

如何忠鯁不容世

공연히 곱던 바탕 엮어지게 하는 것인

지

坐令蕙質空顛仆

유유히 물 밑에서 원한만 맺혔으나

悠悠波底結窮冤

임금님은 끝까지 태도를 고치지 않네

靈脩終未改前度

육신은 아득아득 그 뜻 퍼지 아니했으

니

六神茫茫志不抒

가련히도 분한 마음 얼음처럼 뚱뚱 얼

었네

可憐憤氣長凝沍

시름 안개가 여름눈과 찬 겨울을 덮듯

이

愁煙掩夏雪凝冬

이제껏 저 조수는 서로 얼켜 돌고 도네

祇今潮水常回互

원의 난초 풍의 백지는 저절로 봄과 가

을

沅蘭澧芷自春秋

흰 마름꽃은 시인의 흥취만을 이바지

해

白蘋只供詞人趣

동정호 물결과 구의산엔

洞庭之波九疑山

함지곡이 끊어지고 순 임금 무덤만이

咸池曲斷重華墓

응당 귀신들이 충정을 호위하여

定應神鬼護忠精

하늘에 끼고 올라 요포를 거닐걸세

挾上九天登瑤圃

응과 봉을 잡아타고 옥방울 울리면서

驂螭駕鳳鳴玉鑾

온 세상을 자유로이 끝까지 달려가리

라

一任八荒窮馳騫

옥황상제 불러 들여 임금 곁에 두고

玉皇致之紫殿側

실컷 보며 아침마다 특별 은혜 내리겠

지

飫見朝朝承雨露

기미성을 돌아보며 부열에게 인사 올

리고

回看箕尾揖傳說

왕교와 상종하여 주거를 같이 하며

與從王喬同止住

손으로 북두 잡고 혜성을 문지르니

手援北斗撫彗星

뇌공과 우사는 서로 붙어 의지하네

雷公雨師相依附

함지에서 말에게 물 주고 고삐를 매는
뒤에

咸池飲馬摠其轡

천진으로 급히 올라 말을 채찍하겠지

直跨天津策騏驎

혹시 뱀에 밀려 교통 입에 떨어져서

不應顛泥墮蛟涎

명월주 옷 입고 공연히 미옥 버리는 일
없으리

明月空捐淪寶璐

연잎 옷과 혜초 떠는 어렴풋이 보이는
듯

荷衣蕙帶見髣髴

구름가에 휘날려 그대 뉘와 함께 머물
렀노

飄飄雲際君誰駐

붉은 깃발 휘황찬란 해는 움직이니

霞旗委蛇日車轉

그대 한번 풍진 세상 다너가길 바라노
라

願君一枉風塵步²⁷⁾

위 시는 총 54구로 이루어진 장편고체 시이다.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1구에서 4구까지가 첫 부분이고, 5구부터 32구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며, 33구부터 52구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고, 53구부터 54구까지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다. 첫 부분은 본격적인 내용 전개에 앞서 언급한 것으로 문장으로 치자면 서론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본론에 해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결론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첫 부분에서 경도 놀이에 앞서서 본 주변 모습을 간략히 정리해 말하였다. 1구에서 말한 ‘초협’은 초나라의 협곡으로, 대체로 무협巫峽을 가리킨다. 아마도 굴원이 빠져 죽은 먹라수로 가기 위해서는 초협을 거쳐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초협을 말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초협은 지나가기가 험하다라는 것을 2구를 통해 말하였고, 이 뿐만 아니라 3구를 통해서는 소상강의 우거진 풀이 사람을 또한 괴롭힌다라고 언

27) 金麟厚, 『河西全集』卷4, 「競渡詩」

급하여 먹라수로 가는 길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알렸다. 4구에서 말한 ‘길손’은 곧, 경도 놀이를 이끄는 주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먹라수로 가는 길이 험하여 혼이 끊어진다고 언급해 배를 타고 험한 길을 헤쳐 가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험한 길을 헤쳐 드디어 먹라수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5구에서 이를 분명히 알려주었다. 경도 놀이를 하는 목적은 바로 먹라수에 다다라 굴원의 시신을 건져 올리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놀이를 이끄는 주체자는 굴원의 혼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7구와 8구를 통해 굴원의 혼이라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빌어보니 마치 택반에서 시를 읊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곧, 굴원이 시를 읊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환청일 뿐 실제로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어 10구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드러낸다. 그러나 결국 시신을 찾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니 굴원이 지은 「초사」를 노래 부르며 각반角飯, 즉 찹쌀떡을 물에 던지기 시작하였다. 상영湘靈은 비파 타고 풍이馮夷는 춤을 추어보나 굴원은 둘

아울 기미가 없다. 상영은 순 임금의 비아황娥皇·여영女英 자매가 상수湘水에 빠져 죽어 그리 부르게 되었고, 풍이는 강신江神의 이름이다. 이처럼 굴원의 혼을 부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나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 모든 일이 헛수고로 돌아가자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때로 한번 부르짖었고, 굴원의 육신이 뜻을 펴지 못해 마치 얼음처럼 꽁꽁 얼었다고 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어 김인후는 세 번째 부분인 33구부터 52구까지에서 상상력을 적극 발휘하였다. 이 부분은 바로 굴원의 사후死後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대체로 그 내용은 긍정적이다. 특히, 37구와 38구를 통해 “응당 귀신들이 충정을 호위하여, 하늘에 끼고 올라 요포를 거닐걸세”라 말하여 굴원이 죽은 뒤에 여러 귀신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그 뒤의 내용 역시 긍정적인데, 굴원이 죽은 뒤 옥황상제 옆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은나라 고종高宗 때의 재상 부열傳說에게 인사를 올릴 것이며, 전설상의 신선인 왕교王喬와 상충한다라 말하였다. 이어지는 내용도 대체로 굴원이 죽은 뒤 큰 대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세 번

째 부분은 순전히 김인후가 상상력을 발휘해 나타난 것으로, 이는 김인후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김인후는 굴원이 비록 현실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 죽었으나 죽은 뒤에는 살았을 때의 삶과 반대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랐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굴원이 살아서 풀지 못한 한을 죽어서라도 풀기를 바랐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53구부터 54구까지인데, 아무리 사후가 좋다하나 그래도 현실 세계를 다녀가길 바란다라 말하여 굴원의 시신이 건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경도 놀이를 하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내보였다.

3. 시 형상화의 의의

지금까지 2장에서 전통놀이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김인후는 직접 놀이를 체험한 뒤 시로 형상화하기도 하였고, 굴원과 관련한 놀이를 소재로 상상력을 발휘해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직접 놀이를 체험한 시 중에서 「상사답청」과 「관등」은 「격구부」, 「한식일작」, 「관격구」 등

에 대비했을 때 특별한 소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상사답청과 관등은 격구 놀이에 비할 때 특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격구 놀이에 대해서는 2장1절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가 아니다. 특히, 마상 격구를 즐기 위해서는 우선 말이 있어야 하고, 혼자서 할 수 없기에 팀을 꾸려야 한다. 그 정도로 부활을 상징하는 놀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 형상화의 첫 번째 의의는 주로 격구 놀이와 관련한 시로써 논의하고자 한다.

한시사의 역사에서 이런 격구 놀이를 소재 삼아 시를 지은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고려후기에 이색李穡(1328~1396)이 격구 놀이를 소재 삼아 총 네 편의 시를 지었는데, 「관격구觀擊毬」(『목은시고』 권8), 「문단오파격구聞端午罷擊毬」(『목은시고』 권23), 「단오일재추관격구 결봉림광맥 범격구자 개상소락점 비차막감여 시이재상역출격 여여상당군지시방 우신평군 등시루공우목언 명일유우 희이가지端午日 宰樞觀擊毬 結棚臨廣陌 凡擊毬者 皆上所落點 非此莫敢與 是以宰相亦出擊 予與上黨君至市傍 遇新平君 登市樓共寓目焉 明日有雨 喜而歌之」(『목은시고』 권23, 「단오일격구 전례야

주상전하우념병황민다류망 방치측석미
 재지지 재상상체성심 금군음 발창진제
 고어시일 역파격구 신색감격지지 吟成
 一首以志 약기자제습치빙 사취위악 필■
 불금야 수능초아공관호端午日擊毬 前例
 也 主上殿下憂念兵荒民多流亡 方致仄席弭災
 之志 宰相上體聖心 禁群飲 發倉振濟 故於是
 日 亦罷擊毬 臣穉感激之至 吟成一首以志 若
 其子弟習馳騁 私聚爲樂 必■不禁也 誰能招
 我共觀乎」『목은시고』 권29 등이 그 작품
 이다. 시제를 보면, 고려시대 때 격구 놀
 이는 주로 5월 5일 단오절에 실행했던
 것 같다. 고려시대 때 격구 놀이는 조선
 시대 때보다 흥행하였고, 너무 흥행해
 그 폐단이 있어서 오히려 경계하려는 움
 직임도 있었다. 흥행했던 것에 비하면
 그리 많은 작품 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나 당시 격구 놀이의 실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색의
 네 편의 시는 그 의의가 작지 않다.

김인후의 격구 놀이 시 역시 이색의
 시와 마찬가지로 나름의 의의가 있다.
 앞 2장 1절에서 이미 격구 놀이의 역사
 를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다
 시 적어보면 “격구에 대한 활용도가 커
 진 시기는 세종 때이다. 세종은 내정에
 서 종친들과 마상격구를 즐기면서 이 놀

이문화를 체계화시켰다. 급기야 신하들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상격구를 무과
 시험으로 채택하였다. 세조 때는 세종
 때 확립된 지상격구 방식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었다.”이다. 이 내용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 때 격구 놀이가 가장 흥행
 했던 때는 세종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 격구 놀이는 무과시험의 한
 일부분일 뿐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인후의 격구 놀이 관련 시는 당시 격구
 놀이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인후
 가 지은 「격구부」 등의 작품을 보면, 격
 구 놀이의 주체가 양반가의 자제인 공자
 公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격구
 놀이를 반드시 궁중에 있던 사람만 실행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도 하다. 다시 말해 김인후의 격구 놀이
 시는 격구 놀이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김인후는 격구
 놀이를 역동적이고 사실적으로 형상화
 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인후의 제자 조희문趙希文은 일찍이
 『하서전집』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선생의 시문은 위로 당우唐虞 삼대三代를 소급하고, 초한楚漢 당송唐宋을 넘나들었으며, 조예의 깊이는 전성前聖의 온오蘊奧를 파헤치고 말 만드는 묘법은 사물의 정상情狀을 다하여 정의精義의 발현이 아닌 것이 없었으며…….²⁸⁾

당우는 요순시대를 말한다. 조희문은 스승 김인후의 시를 평가하기를 시대의 범위가 넓었고, 조예가 깊었으며, 묘사하는 기법은 사물의 모습을 다하여 정미로운 뜻이 발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 말하였다. 조희문은 양자징梁子徵, 기효간奇孝諫, 변성온卞成溫 등과 함께 김인후의 대표 제자이다. 그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김인후의 시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 글은 평소 스승 김인후의 시 창작을 눈여겨보고 쓴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위 글에서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멀리 요순시

대를 소급하고 초한 당송을 넘나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시대를 총망라해서 시의 소재를 찾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앞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인후는 평소 제자들과 학문을 논의할 때 굴원과 그가 남긴 작품에 대해 언급한 뒤 느낌이 일어 시를 짓기도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굴원과 관련한 놀이 경도와 관련한 시를 무려 세 편을 남겼는데, 시대와 세상을 보는 시각의 폭이 넓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단오 또는 경도 놀이를 소재 삼아 시로 형상화한 경우는 김인후가 유일하지는 않다. 문경동文敬叟(1457~1521)은 「단오端午」(『창계집』 권1), 최연崔演(1503~1549)은 「경도競渡」(『간재집』 권2), 박승임朴承任(1517~1586)은 「경도원競渡怨」(『소고집』 권1), 양사언楊士彦(1517~1584)은 「경도원競渡怨」(『봉래시집』 권3), 권호문權好文(1532~1587)은 「단양일유端陽日有」(『송암속집』 권1), 김성일金誠一(1538~1593)은 「경도일유감競渡日有感」(『학봉집』 권1), 김지

28) 金麟厚, 『河西全集』 卷首, 「河西先生全集舊序」(趙希文), 先生詩文 上訴乎唐虞三代 汎濫乎楚漢唐宋 造詣之深 發前聖之蘊 措辭之妙 盡事物之情 莫非精義發見…….

수金地粹(1585~1639)는 「오월오일우음
五月五日偶吟」(『태천집』 권1), 김남중金
南重(1596~1663)은 「단오端午」(『야당
유고』 권1), 이만영李晩榮(1604~1672)
은 「경도곡競渡曲」(『설해유고』 권1), 신
익전申翊全(1605~1660)은 「관경도자
유감觀競渡者有感」(『동강집』 권2), 「경
도곡競渡曲」(『동강집』 권3), 심유沈
攸(1620~1688)는 「단양일 자로강승주
하탄端陽日 自鷺江乘舟下灘」(『오탄집』 권
10), 신곤申混(1624~1656)은 「태인과
양정泰仁披香亭」(『초암집』 권1), 박태순朴
泰淳(1653~1704)은 「경도競渡」(『동계
집』 권4) 등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여러 문인들이 남긴 시에
대비했을 때 김인후는 시 편수도 더 많
이 남겼을 뿐 아니라 세 편 모두 장편시
로써 내용을 구체적으로 읊어 경도 놀이
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김인후는 경도 놀이와 관련한 작품을 통
해 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했는데, 이
때문에 그의 문학적 창작 능력의 수준을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고 생각한다. 사실 김인후가 남긴 1,600
수의 한시 작품은 시풍詩風으로 따졌을
때 당시풍唐詩風과 송시풍宋詩風이 혼재
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도학자로서의
인상이 강해 당연히 대다수의 시가 송
시풍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정감어
린 시도 다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²⁹⁾ 이를 통해 볼 때 김인후는 상상력
과 감성이 풍부한 도학자로 규정하는 것
이 옳다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김인후
가 남긴 경도 놀이 관련 시는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생각한다. 도학자이지만 그
작품 내용에서 도학적인 내용을 담기보
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
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인후의
시 창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9) 허균은 「惺叟詩話」(『성소부부고』 권25)에서 “하서 김인후는 마음이 높고 넓으며, 온화하고 순수했는데, 시 역시
그 인품과 같았다. 梁松川은 그의 「登吹臺詩」를 극찬하여 高適·岑參의 높은 운이라 했다고 한다.”라는 했다. 고적
과 장참은 모두 당나라 때의 시인이다. 김인후를 이 두 사람에 대비시켰다는 것은 특히, 「등취대시」가 당시풍에
근접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김인후가 시를 통해 전통놀이를 형상화 한 것에 주목하고, 형상화 양상을 정리한 뒤에 그 의의를 언급하였다. 김인후의 한시 작품은 현재 1,600수 정도 전하고 있다. 그 중에 전통놀이를 읊은 시는 「격구부」, 「경도사」, 「경도」, 「경도시」, 「한식일작」, 「상사답청」, 「관격구」, 「관등」 등 총 8제 8수이다. 이는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작품 1,600수에 대비했을 때 적은 양이라 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작품을 통해 당대 풍속의 일부를 알 수 있고, 아울러 김인후의 문학적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2장에서는 전통놀이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 논의하였다. 첫째 「격구부」, 「한식일작」, 「상사답청」, 「관격구」, 「관등」 등 작품은 김인후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한 놀이를 소재로 한 것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논의하였다. 둘째, 김인후는 초나라의 충신 굴원과 관련한 경도 놀이를 소재 삼아 시를 지었는데, 「경도사」, 「경도」, 「경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작품을 분석 정리하였다. 이 두 가지 양상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3장에서는 전통놀이 형상화 시의 의의를 구명하였다. 주로 격구 놀이와 경도 놀이를 소재로 삼은 시를 대상으로 그 의의를 구명하였다. 김인후의 격구 놀이 시는 당시 격구 놀이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았다. 특히, 김인후는 격구 놀이를 역동적이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했다. 김인후가 지은 경도 놀이 소재의 시는 도학자이면서 상상력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작지 않다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 김인후의 시 창작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藝文類聚』

『晉書』

金麟厚, 『河西全集』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正祖, 『弘齋全書』

許筠, 『惺所覆瓿藁』

강재욱, 「한·중 격구의 역사적 전개와 연행양상」, 『중국 인문과학』 제74집, 중국인문학회, 2020, 247쪽. (DOI : 10.35955/JCH.2020.04.74.247)

閔丙秀, 『한국한문학개론』, 태학사, 1997.

이효진, 「하서 김인후의 세속풍속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40쪽.

임선우, 『재미있는 중국 풍속 이야기』, 지식과감성, 2018.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엮음, 『한국의 세시풍속』, 민속원, 2013.

정형호, 「동아시아 격구의 전승 양상과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2010, 255~257쪽. (UCI : G704-000738.2010..41.005)

趙麒永, 『하서 김인후의 시문학 연구 - 도학적 세계인식과 시적 범주』, 아세아문화사, 1994.

종름 지음 상기숙 옮김, 『형초세시기』,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최우영·윤영조·윤영환, 「격구희와 개최공간의 역사적 고찰(1)」,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권 3호, 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136쪽. (UCI : G704-000555.2011.29.3.011)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격구협회 편집, 『한국의 무예(마상무예)』,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하서 김인후선생 선양사업宣揚事業의 방향과 제언

홍성덕(전주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선양宣揚’이란 명성이나 권위를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현의 사상과 학문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선양의 대상은 ‘국위國威’ ‘덕화德化’ ‘풍화風化’ ‘교화敎化’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 선양하려는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감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양사업은 형식적이거나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형식에 지배될 때, 그 생각은 결코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양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유념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현을 선양하는 데 노력합니다. 선현의 삶과 철학을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후손들에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면서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래 1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1년의 시간이면 충분한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비대면과 사회연결망의 확대, 인공지능의 발달 등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선현의 선양사업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자문해 보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선현 선양사업의 유형과 방향

죽은 사람을 기리는 의미에서의 선양은 고대 때부터 시작된 문화입니다. 구석기 시대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홍수아이의 유골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

니다. 죽은 자에 대한 추모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추모하는 것과 선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억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모와 선양은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리기 위해서 묘를 조성하고, 묘비를 세우고, 제향을 모시는 것은 죽은 자의 추모 기억화 과정입니다. 선양은 그보다 더 나아가 죽은 자의 삶과 사상을 배우고 후대에 전승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죽은 자는 ‘선현’이 되고 살아 있는 사람과 미래에 태어날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선양의 역사화 과정입니다.

근대 이후 선양사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공간조성: 서원·사우의 복원,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전시관, 생가(고택) 복원 등 선양을 위한 건축 공간의 조성 사업
- 학술연구: 자료조사 및 수집, 번역, 학술대회, 연구자 양성 지원, 학술교류, 연구 저서 출간 등 선현에 관한 학문적 연구 사업
- 추모기념: 제향 봉행, 기념식, 축제,

각종 공모(백일장) 사업,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전시회 등 선현에 대한 추모와 기념행사

- 교육홍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체험 교재의 제작,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소식지 발간 등 선현의 사상 보급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 문화예술: 공연(연극, 뮤지컬, 창극 등) 제작, 문학작품(시, 소설 등), 미술전시,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 영화·애니메이션·웹툰 등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

선양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 기념사업회 또는 조직위원회 등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집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선현(역사인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인물 선양’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1. 시행)을 제정하였습니다.

선현 선양사업은 지역 정체성의 정립과 맞물리면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념 공간이 조성되고 축제 등의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양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공과의 의견이 상존합니다.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유념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속성입니다. 선양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선양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분명해야 하고, 선양사업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공감대 형성은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판단하기에 너무 당연하더라도 지역 주민 중에는 덜 공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세대의 확장과 선양사업 대상의 확장·연결 그리고 지역 간 교류 확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유학의 전통문화에 대한 세대의 확장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향교나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상은 확장되고 있으나, 사업 주체의 세대 확장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선양사업은 지역 내 선양해야 하는 선현과의 연결을 통해 확장되어야 하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서 전국화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향성입니다. 선양사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과거 지향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선양사업의 대상은 과거의 인물이지만 목적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전통문화로서 ‘유학(유교)문화’가 죽은 문화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선양사업의 미래 지향적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 미래 세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젊은 감성에 기반한 방안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하서선생 선양사업 제언

‘해동의 염계, 호남의 공자海東濂溪, 湖南洙泗’로 불린 하서선생은 호남을 대표하는 도학자로서 문묘에 배향된 동방 18현 중의 한 분이십니다. 1560년 1월 돌아가신 뒤 4년 후 하서선생은 옥과 영귀정사에 배향되었고, 1570년에는 순창 화산사에 배향되었습니다. 1590년 장성에 필암서원이 건립되면서 선양은 본격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69년 ‘문정文靖’ 시호를 하사받으셨으니 서거 후 1백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1796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문묘에 모시게 되면서 ‘문정文正’으로 시호가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선양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묘 종사에 이르기까지 2백 2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 하서선생 문집은 잘 아시다시피 1568년(선조 1) 김인후의 문인 조희문趙希文 등에 의해 처음 간행된 뒤 1686년(숙종 12) 초간본에 부록과 별집을 추가하여 중간되었습니다. 1796년(정조 20) 하서선생을 문묘文廟에 배향할 때 정조의 명에 의해 다시 간행되었고, 이후 1802년(순조 2)원집과 별집을 통합하고 문체별로 편집하여 전집全集이라

하고 연보를 추가했습니다. 1980년에 하서선생 기념사업회에서는 『백련초해百聯抄解』, 『하서초천자河西草千字』, 『하서유묵河西遺墨』 등을 추가로 수록하여 『하서전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했습니다.

근대 이전 하서선생의 선양사업은 문묘 종사, 서원 배향, 문집 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대 이후 하서선생 선양사업은 선양사업 방향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필암서원 산양회는 1953년 산양계로 출발하여 2011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70년 넘게 선양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술대회 개최, 학술강연, 학술지/회보 발간, 백일장 개최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하서학술재단(하서기념회)은 유학 연구발표회, 성리학 강론회, 유학 학술대회, 유학 강학講學 및 한글 글짓기 행사 등을 지원하고 도서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필암서원 내에는 하서문고, 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십 년 동안 선비학당, 청백리 교육체험, 선비체험 등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뒤 국가유산청과 지방정부의 세계유산 활

용사업의 일환으로 활발한 선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서선생 선양사업은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해 오는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2024년 5월에 개최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서원의 역할과 기능’ 학술대회에서 필암서원 김진산 부도 유사의 제언에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제언 중 젊은 층의 참여와 한글화, 재정 지원 조례, 공직자 유학강좌 참여 권장, 전산 인력 확보 등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제언을 바탕으로 하서 김인후선생 선양사업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2012년부터 10년 동안 호남·호서지역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연구의 출발은 전통적 유학이 근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유교문화’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유학’이 가지는 위상은 ‘고루한 담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계승 발전해야 하는 유학의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 박제화된 것입니다. 근현대 유학자

에 주목한 것은 도통道統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했는지를 알아야 유학의 현재화, 현대화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서선생의 선양사업에 대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서정신’의 현대화입니다.

현대인은 사물이나 현상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오감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맛있어야 하고, 듣기 좋아야 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여운을 가지려 합니다. MZ 세대에 하서선생의 삶과 가르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5백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서 정신’의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역사와 유학에 관심이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왜 우리가 ‘하서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호남의 공자’라는 말도 듣기 좋은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과 하서선생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자료들은 인종과 하서선생에 관해 묵죽도와 주지대

전 그리고 매년 인종이 승하한 때가 되면 하서선생이 통곡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절의’라고 이야기하고 불사이군의 정신이라고 평합니다. 이 이야기가 젊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될까요? 세상은 변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군신의 의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종과 하서선생의 의리와 절의에는 국왕인 ‘인종’과의 관계보다 두 사람이 지향했던 ‘지치至治’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종과 인종의 스승이었던 하서선생의 관계를 인종의 승하를 슬퍼하고 그리움을 잊지 못해 매년 그때가 되면 통곡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에 인식이 머무른다면 올바른 ‘하서 정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의 좌절과 무너져버린 사습士習, 부패한 정치와 실종된 도학에 대한 통곡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곡의 이야기는 도학의 계승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서선생이 통곡만 하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서선생이 훈몽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한 것은 통곡의

시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전통적 유학교육이 근대교육체계에 편입되면서 도통을 계승하는 전통적 유학은 근대 학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학’보다는 ‘한학’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된 상황 속에서 전통적 도학의 계승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 도학은 현대사회의 철학으로 재구조화하여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유학의 현재화를 통해 죽어 있는 유학이 아닌 살아있는 유학으로 현대인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호남지역에서 하서정신의 현대화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하서정신’의 연구확대입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하서 김인후’선생을 검색하면 국내학술논문 60편, 학위논문 18편이 나옵니다. 반면 고봉 기대승선생은 논문 118편, 학위논문 20편, 송강 정철선생은 논문 127편, 학위논문 96편이고, 노사 기정진선생은 논문 169편, 학위논문 23편입니다. 퇴계 이황선생은 논문 1,234편, 학위논문 381편입니다. 물론 이 통계에는 간접적인 언급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만, 선현에 관한 후학의 연

구 경향을 살필 수는 있습니다. 도학에 대한 하서선생의 저술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만, 16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유학자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연구는 선양사업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요즘 젊은 연구자들은 원 사료를 읽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양한 사료를 번역하고 연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국역 하서전집』(1987년)이 간행되었지만, 그 내용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료의 수집과 정리, 번역은 하서선생 뿐 아니라 필암서원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필암서원에는 『하서집』 이외에도 『노비보奴婢譜』, 『문계안文契安』 등 1,300여 권의 책과 고문서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서선생의 제자와 후학의 글을 조사하여 자료집을 만들고 번역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암 변시연선생이 쓴 『필암서원 중수기』를 비롯 18편의 기문과 시, 논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집 범위를 현재까지 확장하여 하서선생과 필암서원의 역사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서비스해야 합니다. 필암서원에서 독자적인 서버를 갖추고 서비스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남대 도서관에서 소장 전적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다만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장성지역 유학의 전통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장성군은 필암서원과 하서선생 선양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을 이야기합니다. ‘문불여장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文’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체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인물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장성군에는 홍길동 기념사업 조례는 관광분야에 있으나 문화분야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조례뿐입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필암서원과 하서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성군의 역사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

레 제정을 통해서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장성하면 떠오르는 인물에 하서선생보다 홍길동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성의 유학전통 확립을 위해 하서선생 이후 근현대까지 장성의 유학자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재 전우선생의 문인록인 『화도연원록華島淵源錄』에는 장성출신이 80명이지만, 연재 송병선선생의 문인록인 『계산연원록溪山淵源錄』에는 193명, 노사 기정진선생의 문인록인 『사상문인록沙上門人錄』에는 232명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선양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운영조직의 확대입니다.

현재 서원이나 향교 등 전통적 유학기관에서 유학의 계승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 전통적 유학 교육의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이나 향교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여러 교육·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체적인 인력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서원·향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현장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계승사업이 단발적이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원·향교의 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규범화하여 발전하는 데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지원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단발적 교육 체험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전통유학의 교육 체험을 위해서는 운영 능력이 쌓일 수 있도록 자체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공공 교육기관과의 협력입니다. 대학의 연구소나 비영리 학술법인은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관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선양사업회에 참여하는 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서선생과 필암서원은 호남 유학의 심장과 같습니다.

기호유학 속에서만 언급된 호남유학이 독자적인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호남의 공자’라 불린 하서선생의 선양과 필암서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전라도가 남북도로 나뉘었지만, 전라도·호남의 전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남의 필암서원, 전북의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두 지역의 유학 지형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영남이나 호서지역에 비하면 호남지역의 유학에 대한 정체성 수립은 지난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도통의 계승과 학맥의 형성에서 호남유학은 근 현대에 특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하서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정척사를 외친 노사 기정진

선생이나 도통의 계승을 강조하여 은거 후학양성에 노력한 간재 전우선생 역시 하서선생이 뿌려 놓은 호남유학의 계승자였습니다.

하서선생과 필암서원의 선양사업은 ‘장성’을 넘어 호남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성의 하서가 아닌 ‘호남의 공자’의 위상이 바로 설 때 호남유학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덕 교수.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일본 게이오대학 연구원.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 및 기록관리 자문위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기록관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위원장.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학생취업처장, 기획처장. 전주대학교 대외부총장.

장성을 빛낸 한말의병

- 노사학과를 중심으로

홍영기(한국학호남진흥원장)

1. 머리말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1798~1879)은 이렇다 할 사승관계도 없이 혼자 힘으로 학문적 일가를 이룸. 그는 이른바 노사학과蘆沙學派를 형성, 19세기 후반에 위정척사운동을 선도, 한말 호남지역 의병항쟁에 앞장선 인물들은 대부분 노사학파의 일원. 이에 장성지역 노사학파의 의병항쟁을 살펴보고자 함.

2. 전라도 최초의 장성의병

1894년 7월 일제가 경복궁 불법 점거, 1895년 10월 명성왕후시해사건 자행, 단발령 강요 → 전국에 걸쳐 의병이 봉기. 전라도에서는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1846~1916)이, “나라치고 망하지 않

는 나라가 없으니, 머리를 깎고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를 안 깎고 망하는 것이 나으며, 사람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머리를 깎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머리를 보존하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의병 봉기. 당시 그는 장성에서 노사학파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의병을 일으켰는데, 노사의 친손자이자 노사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 나주의병이 일어나는 데에도 크게 기여.

당시 창평 출신으로 학봉 고인후鶴峯 高因厚의 11세 사손祀孫 고광순高光洵은 기우만의 의병봉기에 합류. 송사는 호남 지방의 대표적인 유생이었기 때문.

기우만의 의병 봉기에 대한 매천 황현(1855~1910)의 기록.

전 참봉 기우만이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고 참판 기정진의 손자로, 가풍을 이어받아 문유文儒로 추대를 받았으나 다른 재간은 없었다. 이때 호남사람들이 다른 도에서는 모두 의병이 일어났으나 전라도만이 의병이 없음을 부끄럽게 여겨 기우만에게 권유하여 기치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양반들이 이를 빙자하여 횡행하자 향리에서는 괴롭게 여겼다.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심의를 입고 큰 갓을 쓰고서 서로 만나면 음양揖讓하고 차례를 지어 나아갔으며, 군량과 병기도 부족하고 기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반드시 패하리라 예측하였다.

- 『매천야록』 권 2, 198쪽.

음력 2월 7일(양 3. 20.) 기우만의 의병 봉기. 그는 고종의 환궁과 개화파의 처단, 옛 제도의 복구, 그리고 복수토적하기 위한 의병임을 천명. 다만 유생 중심 의진의 한계를 지녔음.

장성 출신 노사학파로서 의병에 가담한 주요 인물로는 기삼연奇參衍 김익중金翼中 기재奇宰 기우익奇宇益 김양섭金

良燮 기주현奇周鉉 기동관奇東觀 등인데, 이들은 대부분 노사학파였음. 기재를 비롯한 기씨 일문 뿐만 아니라 많은 참여자가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

이와 같이 기우만은 1896년 봄 장성에서 전라도 최초로 의병 봉기. 그를 비롯한 노사학파의 의병 참여자들은 단발령의 반대, 일본의 구축, 개화정책의 반대, 제도의 복구 그리고 국왕의 환궁 등을 표방. 이를 위해 북상근왕北上勤王을 추진했으나 국왕의 해산조치에 따라 음력 2월 말 해산.

3. 을사늑약 이후의 거의 모색과 호남창의회맹소

1896년 봄에 봉기한 의병이 해산된 후에도 장성지역 노사학파의 유력한 유생들은 의병의 재봉기 모색. 기우만은 1906년 3월 의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전라도 각 군에 통문.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6년 3월 29일자 『의문간포義文刊佈』.

전라남도에서 기우만이란 자가

의병을 초모하기 위해 통문을 판각
板刻으로 간출刊出해서 각 군에 나
누어 보내니 그 도의 관찰사 주석
면씨朱錫冕氏가 일일이 거두어 모
아 내부로 올려 보냈다더라(현대
어로 고침-이하 같음).

1906년 초 기우만 등은 의병을 모집
하는 통문을 목판으로 간행해서 각 군에
유포하자, 전라남도 관찰사가 그것을 수
거하여 내부로 보냈다는 내용. 당시 돌
린 통문은 「만인회동진소통문萬人會同陳
疏通文」.

이 무렵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킬 준
비를 하던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과 돈
현 임병찬遯軒 林炳瓚 등이 기우만 등 노
사학과와 접촉. 이들은 1906년 5월 29
일(음력 윤 4월 8일) 전남 담양의 추월
산 용추사에서 회견. 이들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유생 50여 명과 함께 대일항
전對日抗戰의 방략을 논의.

용추사 모임에서 지은 격문의 일부.

종실 세신 관찰사 수령 및 선비
농부 공장工匠 상공 서리 승려까지
도 일제히 분기하여 마음과 힘을
합쳐 원수 오랑캐를 무찔러 그 중

자를 없애고 그 소굴을 불지르며,
역적의 도당을 섬멸하여 그 머리를
베고 그 사지를 찢어서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명맥을 튼튼
히 하고 (중략) 위 격문을 삼가 순
천 낙안 홍양 여수 돌산 광양 장흥
보성 강진 해남 완도에 통고한다.

- 최제학, 「면암선생창의전말」, 『자료집』 2,
1970, 67쪽

모든 계층이 단결하여 항일투쟁에 나
설 것을 촉구.

그런데 의병을 일으키는 방법론과 목
적, 주도권 문제로 양자의 입장에는 차
이. 최익현과 임병찬은 의병활동을 토대
로 한 대일외교담판론對日外交談判論 주
장. 기우만 등은 상경상소上京上疏나 연
명상소를 전개함과 동시에 열강에 호소
하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자고 주장.
양자 사이에 대응 방법이 달라 협상 결
렬. 다만, 이들은 동맹록의 작성에 합의
함으로써 면암과 송사를 비롯한 112명
서명.

이후에도 기우만은 포기하지 않고 항
일투쟁을 모색. 그는 백낙구白樂九 고광
순 등과 함께 구례 중대사中大寺에 집결
하여 지리산을 근거지 삼아 의병봉기 모

색. 이 사건에 연루된 기우만은 1906년 음력 10월에 체포. 당시 기우만은 일제 경찰로부터 백낙구 의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함.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찾지 못한 일제 경찰은 그를 풀어줌.

한편, 1907년 음력 3월 기삼연은 능주의 양회일, 창평의 고광순 등과 의병 봉기를 계획하며 창평과 능주 등지를 전전. 양회일은 고광순 기삼연 등과 함께 각자 자신의 출신지를 배경으로 거의하기로 합의. 즉 고광순은 광주와 창평, 기삼연은 장성, 그리고 양회일은 능주를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킬 계획. 기각지세 犄角之勢를 형성하여 일본 측을 교란시키려는 전술. 하지만 서로 약속이 어긋나 능주의 양회일이 홀로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됨. 요컨대, 기우만과 기삼연 등은 노사학파의 지지와 성원보다는 개별적으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과 더불어 연합항전을 도모.

거듭된 의병계획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삼연은 1907년 10월 불굴의 의지로써 동지를 모아 호남창의회맹소 湖南倡義會盟所 결성. 그는 1896년에 기우만이 주도했던 장성의병에 참여한 바 있으며, 1902년 5월에도 의병을 일으

키려다 체포된 바 있음. 1903년에도 그는 ‘인통함원忍痛含冤’ 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며 오로지 거의할 궁리에만 전념. 그는 의병에 뜻이 있는 동조세력을 모으기 위해 장성을 비롯한 인근 군읍의 뜻 있는 인사들과 빈번히 접촉. 1906년 봄부터 그는 영광의 김용구金容球와 자주 만나 세력 확대, 장성 수연산 석수암에서 창의.

기삼연이 주도한 호남창의회맹소의 명칭에 주목. 노사학파의 기우만도 그러했지만 기삼연 역시 의진의 편성에 “회맹會盟”을 강조. 즉, 1896년 음력 2월 기우만은 광주에 의병을 집결시키려 할 때 “광산회맹光山會盟”을 표방. 여러 의진의 연합을 강조한 것. 영광 출신으로 호남창의회맹소에 가담했던 김용구金容球 역시 의병의 모체로 일심계를 창설할 때 ‘회맹명록會盟名錄’을 작성. 다시 말해 당시 호남지역 의병 주도층은 여러 의진의 연합을 강조. 일제 군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고려.

호남창의회맹소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합진合陣과 분진分陣이 용이하여 장기항전의 기틀을 마련. 그 결과 호남의병의 눈부신 활약으로 말미암아 전남은 의병항쟁의 주무대로 떠

오름. 일제의 남부수관구 사령관 쓰네요시恒吉 소장은 대구에 주둔 중이던 14연대장 기쿠치菊池 대좌로 하여금 직접 호남의병의 뿌리를 뽑으라고 명령.

호남창의회맹소의 계열의 여러 의병부대가 심각한 타격. 특히, 기삼연이 이끄는 본진은 담양 금성산성에서 일제 군경의 기습을 받아 약 30명의 의병이 전사했으며, 부상당한 의병도 30여 명이나 되었음. 기삼연은 정월 보름 이후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자신은 순창 복흥의 조동槽洞에 피신. 1908년 2월 2일 음력 설날 이마무라今村 토벌대에 의해 체포. 이로써 기삼연 중심의 호남창의회맹소의 활동은 종식.

한편, 의병장 기삼연의 휘하에서 활동하던 김용구를 비롯한 호남창의회맹소의 지도부는 거의 붕괴 상태의 본진을 신속하게 재편.

본년 2월 초순부터 3월에 걸쳐 기쿠치菊池 토벌대가 광주 부근을 소탕하여 수괴 김용구(기삼연 : 필자주) 이하 2백여 명을 사살하였으므로 일시 정온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적焰賊焰은 곧 재연하여 전라남도 일대에 걸쳐 소요를 야기하게

되었다.

- 『조선폭도토벌지』; 『자료집』 3, 771쪽

호남창의회맹소의 지도부는 의진을 재편하여 다시 반일투쟁에 나섰다는 것. 이처럼 이들이 비교적 쉽게 의병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호남창의회맹소가 합진과 분진이 용이한 연합의진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그리하여 김용구 김태원 김울 박도경 이대극 김공삼 김봉수 이남규 강사문 조경환 오성술 심남일 유병기 김원국 김원범 박용식 강무경 권택 안찬재 박사화 나성화 김도숙 등.

4. 맺음말

첫째, 노사학과를 대표한 기우만은 전라도 최초로 의병을 일으킴. 수많은 노사학과가 동참. 이들은 호남 지역 전체로 의병 봉기를 확산하기 위해 나주의병과 연합하였으며, 이른바 광산회맹을 추진. 국왕의 해산조칙에 의해 해산.

둘째,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에도 노사학과 문인들은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 특히 기우만과 기삼연의 활동이 돋보였는데, 타 지역 의진과의

연합을 시도하거나 기각지세를 형성하려 한 점에서 주목.

셋째, 기삼연이 주도한 호남창의회맹소는 노사학파의 학통적 결속력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회맹을 강조함으로써 장기항전의 기틀을 마련. 이들의 활동이 크게 확산되자, 일제는 1908년 초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자행하여 기삼연 의병장을 비롯한 수많은 의병들이 순국. 하지만 호남창의회맹소의 지도부는 불굴의 투쟁을 감행하여 전남은 1908~1909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항일투쟁의 활동무대가 되었음. 요컨대, 장성지역의 노사학파가 호남 지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호남의병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향후 과제로는 먼저 장성 출신 미서훈자의 서훈 신청 시급. 장성 출신 의병서훈자는 기우만 및 기삼연 의병장 등 33명 정도.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자 100여 명 확인됨.

다음으로 한말 호남의병을 대표하는 장성의병 유적의 정비 필요. 전라도 최초의 의병근거지였던 장성향교는 제례와 강학 공간으로 기억. 기우만을 비롯

한 노사의 문인들은 장성향교에서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필요. 호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한 장소인 석수암지를 전남의 대표적 한말의병 유적으로 지정할 필요.

또한 전라도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기우만 의병장 및 호남의병의 대표적 표상인 기삼연 의병장의 생가와 묘소 등의 정비 필요. 뿐만 아니라 기우만이 상복喪服을 입고서 천인賤人을 자처하며 1909년에 『호남의사열전』을 저술한 삼성산의 삼산재三山齋 유적 보존 필요.

그리고 노사 기정진을 비롯한 노사학파의 대표적 유학자의 신위를 모신 고산서원도 한말 장성의병의 대표적 유적. 장성의병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노사의 절의정신이 깃든 공간이자, 장성 출신인 기우만 및 기삼연 의병의 신위가 모셔진 사우이기 때문. 또한 이곳에서 기정진 및 기우만의 문집이 편찬된 곳임.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판 시설조차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장성군의 한말 의병유적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

하서와 소쇄옹의 효의 공감장, 소쇄원

김경호(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교수)

1.

돌이켜 보면, 만추晩秋의 계절이 깊어 지는가 싶더니 어느덧 ‘소설小雪’을 지나 ‘맹동孟冬’의 계절이 ‘개동開冬’을 알리고 ‘조동肇冬’이 되었다. 음력 10월이 지났으니,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아마도 이 계절이 되었을 때, 『역易』에 밝았던 하서 김인후(1510~1560) 선생이나 소쇄옹 양산보(1503~1557) 선생은 한결같이 패를 뽑아 들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들의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았을 터이다. 우리 시대의 지금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의 구분이 모호해지기는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을이 가고 겨울로 이어지는 이 절기는, 한마디로 자성과 성찰의 시기이다.

『역易』에서는 천도 운행의 원리를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춘하추동春夏秋冬’과 조응하고 특히 유가 철학에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성德性和 작하여 사유하고 있다. 간단히 이 계절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가을[秋]은 ‘이利’에 해당하고 ‘의義’와 짝하며, 겨울[冬]은 ‘정貞’에 해당하고 ‘지智’와 짝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만물이 움트기 시작하며[元] 생명을 자라게 하는[仁] 봄[春]을 지나, 온갖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번성[亨]하면서도 질서에 맞는[禮] 여름[夏]을 넘으면, 온전하고 이로운 것들[利]은 남고 쪽정이는 버리는[義] 정성스러운 것들만 열매를 맺는 가을[秋]로 이어진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를 올곧게[貞] 지켜내고 지나온 계절의 지켜온 생명의 지혜[智]를 깊이 간직한 겨울[冬]로 이행한다.

이래야 봄날의 햇살과 여름날의 비바람과 가을날의 짹짹한 별을 담았던 공

기가, 세월과 자연을 온축한 대지의 숨결이 결실로 이어지게 된다. ‘결실結實’이라는 한자는 그와 같은 결과물이 ‘實’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結’을 상징한다. ‘實’은 그래서 ‘허虛’나 ‘위僞’가 아니다. ‘實’은 ‘진실眞實’이고, ‘정성스러움’ 곧 ‘성誠’이다. 그래서 유가 철학에서 ‘誠’은 천도天道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하늘의 도리는 하나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공력이자 우주 자연의 기운이 응축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열매의 ‘實’은 인문적인 삶의 세계를 강조하는 유학의 도학적 흐름에서 도학자들에 의해 ‘성실誠實’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듯 쪽정리와 껌데기는 가고 온전하게, 뜨겁고 의로운 것들만이 남아 응축된 가을날의 ‘결실’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 생명의 진리를 온축한 ‘결실’들은 그러하기에 다음 세대로 자신들의 생명(진리)을 전승할 가능성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생명의 진리는 그래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황지우, 시)의 희망을 개시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단지 ‘물리적 힘겨움’만이 아니라, 그에 비견하는 ‘인

문적 힘겨움’이 동시에 따른다. 바로 ‘인동忍冬의 엄혹함’이다.

2.

인동忍冬은 삶을 절멸시킬 정도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고통을, 힘겨움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런데 인동忍冬이 값진 것은, 그것이 힘겨움을 견뎌냈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忍冬’은 고통과 힘겨움을 감내하고 견뎌내면서, 분노와 원망, 르상티망을 넘어서, 새로운 연대와 저항을 위한 삶의 동력으로, 생명력으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인동忍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인동忍冬과 같은 것이 다른 아닌 효孝이고, 이 효의 도리가 ‘효도孝道’이며, 효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효리孝理이다.

효의 이치가 삶의 근본적인 도리가 되는 것은, 그것이 말처럼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효의 도리가 표창되는 것은,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효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인동忍冬’처럼 스스로 자기의 온 ‘맘과 몸’

으로, ‘온-경험’으로, 삶으로 체험하고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효의 경험과 체득은 몸에 각인되고 마음에 새겨져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숭고하고 선하게 바꾸게 한다. 그러니 나이가 적은 어린 사람이라고 하대하지 않고, 지위가 높다 하여 강압하거나 굴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효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인가? 옛날에도 그러했고, 우리 시대에도 이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시대에 이념화되고, 도구화되었던 훈육으로 강제되었던 ‘효’를 오늘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통 시대에도, 하서가 살았던 시대에도, 자식을 낳아준 어버이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서가 그랬듯이, 소쇄옹이 그랬듯이, 이들은 ‘효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효자’였다. 효를 체득한 어버이는 자식들에게 자애롭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량하고 친절하다. 그러한 어버이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형제자매와 화목하며, 공동체에서 이타적인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 간다. 어버

이에게 효를 체득했던 자식들이, 그런 후예들이, 공동체와 지역, 사직(국가)과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다. 그것이 효리孝理이고 그것이 효치孝治다.

3.

이러한 ‘삶-정치의 유학’을 실천적으로 전수했던 도학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 중국 북송 시대 횡거橫渠 선생이라 불렸던 장재張載다. 장재의 <서명西銘>은 북송 유학사에서 효를 통해 ‘사해동포四海同胞’의 가능성을 논의했던 인물이다. 횡거는 “하늘은 나의 아버지요, 땅은 나의 어머니(건칭부乾稱父, 곤칭모坤稱母)”이고,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이 나의 몸이 되고(고천지지색故天地之塞, 오기체품其體)”,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의 벗(민오동포民吾同胞, 물오여야物吾與也)”이라고 설파했다. 남송 시대 회암晦庵 주희朱熹에 의해서 ‘북송오자北宋五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된 장회거는 이러한 철학사상을 도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전파하였다. 횡거의 이론이 조선 유학에 전승되어 재발견된 것이 퇴계 이황의 ‘서명도西銘圖’이다. 하서와 성균관

에서 긴밀하게 교류했던 퇴계 선생은 말년에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제작하면서, 〈제이서명도第二 西銘圖〉를 작성했다.

유학사에서 강조되었던 ‘효’의 문제가 도학자들의 철학적 논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한마디로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효’를 몸소 행하면 될 터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인간이 ‘선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예기』에서 말하듯이 ‘음식남녀飲食男女’¹⁾하고, ‘자사 자리自私自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유학의 논의에서는 구성해 놓고자 했고, 이를 통해 항구적인 ‘선함’ 혹은 ‘성선’의 가치를 의식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효’라는 것을,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는 당위를 논리적으로, 그리하여 실천적으로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도학자들은 ‘절제’를 통한 ‘교화’도 중요하지만, 선한 자발성을 확장하는 측면도 동시에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절제’와 ‘확장’에 따른 이론이

나 실천 방법론이 갈리게 되는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하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과의 만남과 그 만남이 구성하는 ‘관계’를 핵심 사상으로 간주하는 유학에서, 춘하추동의 물리적 세계는 인문적 삶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는 곧 ‘시간’이고, 그 시간은 ‘피땀눈물’로 점철된 삶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서는 그의 ‘자연가自然歌’에서 ‘청산靑山’이나 ‘녹수綠水’도, ‘산山’이나 ‘수水’도, 산수 사이에 놓인 ‘아我’도 ‘자연自然’이다. ‘自然’은 명사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상태’이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 산수 간에 나도 절로.

두어라 절로 생긴 인생이니, 장차 절로 절로 늙으리라.

靑山自然自然 綠水自然自然 山自然水自然 山水間我亦自然 已矣哉自然生來人生將自然自然老²⁾

1) 『禮記』, 「禮運篇」,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死亡貧苦, 人之大惡存焉.”

2) 『河西全集』續篇, 〈自然歌〉.

하서의 시를 국역한 시에서는 ‘자연’을 대체로 ‘절로’라고 번역했다. ‘저절로’라는 의미다. ‘저절로’라는 것은 ‘인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저절로’는 ‘본래, 본디, 그러한 상태’이다. 하서는 어찌하여 이 ‘自然’³⁾을 취하여 위와 같은 시를 지었을까? 이 점이 하서의 학술사상에서, 철학사상에서 어찌면 핵심이 아닐까 한다. 이 ‘저절로’ 혹은 ‘절로’라는 표현을 담은 ‘自然’은 그가 단지 오늘날의 의미에서 ‘자연을 애호’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하서의 ‘自然’은 도학자로서 ‘성리性理’에 관한 학문’인 이학理學을 공부하고, 그러한 공부와 함께 ‘출처出處, 진퇴進退’의 ‘삶-정치적 상황’에서 ‘의義’에 준거하는 윤리적 실천이 강력하게 결집된 감성적 사유의 한 사례이다. 바로 이러한 사유는 도학자로서 하서가 일재 이항이나 고봉 기대승과 토론하였던 태극음양과 이기 심성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성가학聖可學’을 이루기 위한 ‘사도斯道’에 충실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핵심은 하서가 ‘천

리天理’를 재발견하고, ‘성선性善’을 근거로 하여 ‘성즉리性卽理’의 명제를 내면화하면서 ‘의義’를 구현하고자 했던 도학자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학’의 관점에서 하서의 ‘삶-정치적 유학’ 사상이 응축된 ‘자연自然’은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 천리의 존재로서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명령을 근본적인 덕성으로 부여받은 존재, 즉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의 존재이다. 그러한 인간의 감정과 행위는 본성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거기에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적어도 정의로운 시대라면 말이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불의한 현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하서의 철학적, 정치적 고민도 이 지점에 있었던 듯하다. 특히 인종의 죽음을 겪고 난 후, 회의하고 번민하던 그가 찾아야 했고, 도달하려 했던 지점은 무엇이었을까?

하서는 이익에 따라 이합과 집산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 현실과 세태에 절망했다. 그러나

3) 하서의 玄孫인 金時瑞(1652 ~ 1707, 자 휴징, 호 自然堂)은 長城의 西麥洞에 살다가 1702년(숙종28)에 光州 景陽驛 찰방을 지냈다. 후에 하서가 강학했던 순창의 鮎巖村으로 이주하여 말년을 보냈다. 점안촌에서 소나무와 돌 사이에 집을 짓고 “山水雲三自然歌”의 의미를 취해 ‘自然’이라 편역했다. 『遜齋集』 卷8 「察訪金公行狀」

그는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지향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지점에 ‘소쇄옹’과 ‘소쇄원’이 놓여 있다. 소쇄원의 주인 양산보는 스승이자 선배이기도 했던 조광조의 죽음을 직면하고 창평의 골짜기에 은거하며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서와 교류하게 된다. 그러한 교류는 양산보의 아들인 양자징이 하서의 문하가 되고, 사위가 되어 혼맥을 구성한다. 소쇄옹과 하서가 교류하면서 혼맥까지 맺게 되는 긴밀한 관계는 그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요소 중에는 두 사람이 ‘기묘명현’들과 연관되어 있고, ‘효’를 강조했다고 하는 점이다.

生員金翼 戴清 父良輔生良俊祖信曾承源外生外十餘妻父崔璉	丙科十六人	幼學金廷準 平甫 父世殷祖允禮曾係行	進士崔世俊 子義 父世祖重洪曾深賴外善義記妻父孫審	金麟厚 唐千父珍祖九曾義烈 校理洞文靖 辛卯進	生員金履祥 仲吉 父守連 相體 乙卯貢	南宮忱 誠仲 祭酒父翼祖撥曾順外金獨簡妻父許允寬 辛卯進	訓導魯廷齡 大春 父仁山 察訪	生員楊洪 深源 父公俊祖培曾子瞻外張忠輔 庚子貢	幼學鄭浚 大源 父允誠祖溫曾興外李浩妻父朴顯
廣州人	安東人	和順人	蔚山人	金海人	咸悅人	咸豐人	南原人	士衡人	茅溪人

권관讀卷官’의 책무를 담당했다.

4.

하서의 이력에 특히나 주목할 점은 그가 문과에 급제했던 1540년 경자년 별시의 시험문제가 ‘도학道學’이었고, 그를 뽑아주었던 인물이 김안국이었다는 것이다. 경자년 별시에서 하서는 ‘병과丙科 3위’로 급제했는데, 총 19명의 급제자 중 여섯 번째였다. 별시의 시험 시관은 김안국金安國이었고, 그는 시관으로 ‘독

김안국은 시험문제로, 이렇게 물었다. “도학이 수사洙泗의 전수가 끊어짐으로부터 다시 염락濂洛에 일어나 이정二程이 그 근원을 발명하고, 자양紫陽 주희朱熹가 그 실마리를 이었다. 당시 학에 종사하는 선비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당당히 더욱 드러난 이는 누구이며, 학이 치우치고 엷매어서 스승의 종지를 잃은 자와, 또는 가장

그 종지를 얻어 전하여 폐단이 없는 자를 낱낱이 들어 말할 수 있겠는가. 주자와 더불어 동시에 나서 학으로써 세상에 이름난 자가 역시 많은데, 그 학이 주자와 더불어 같은 자는 누구인가? 다른 자는 누구인가? 그 같게 된 것과, 다르게 된 소이연을 낱낱이 그 실상을 지적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같게 나간 자는 굳이 의심할 게 없거니와, 다르게 나간 자는 역시 취할 만한 것이 없는가? 나는 비록 덕이 적고 일에는 어두우나 군사君師의 소임을 담당하여 학을 일으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세상의 학을 하는 자로 하여금 치우치고 엇매이며 다르고 같은 견해가 없이 하여 하나같이 염락의 바름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그 길이 어디에서 말미암아야 하겠는가? 제생諸生은 각기 평일에 강론하여 얻음이 있는 것을 편篇에 나타내도록 하라. 나는 장차 친히 보겠노라.”⁴⁾

기묘사화 이후 이천의 물가에 은거했

던 김안국은 1538년에는 예조판서가 되어 『이륜행실도』를 간행하여 반포할 것을 요청하면서 도학의 활성화 시책을 펼쳤다. 김안국이 문과의 대책으로 ‘도학’을 출제했던 것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가치와 이념으로 ‘도학’을 세우고자 했던 때문이다. 김인후는 바로 김안국에게 배우고, 김안국과 동료였던 광양의 최산두에게 유희춘과 함께 수학하기도 했다. 김안국과 최산두에게 수학했던 김인후는 이들을 통해 조광조와 연결되었다. 조광조에게 배웠던 양산보는 이점에서 학술적으로 연관 고리를 맺게 된다.

그리고 기묘사화로 스승과 동료 선배를 잃은 양산보는 자연을 벗 삼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배움과 실천을 증명하였다. 그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효’에서부터 비롯한다는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궁행하는 것을 공부의 처음과 끝으로 삼았다. 도학의 가르침은 사람다움의 도리, 곧 효에서부터 비롯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양산보는 항상 “사람의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서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부모에게 효도

4) 「別試策題」, 讀卷官大提學 金安國.

를 못하는 자를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⁵⁾라고 아들인 고암 양자징에게 가르쳤다.

5.

도학의 논의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던 것이 인륜 도덕의 일상적 실천이었다. 어린 학동들의 교육서라고 간주되었던 『소학小學』이 ‘쇄소응대진퇴지절灑掃應對進退之節’을 핵심으로 하여 실천도학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도, 도학자들이 일상적 실천에서부터 그들이 추구하는 도道, 혹은 사도斯道를 체험적으로 깨닫는 과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실천의 과정에서 ‘효’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친친親親’의 도리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런 ‘효’의 실천은 바로 가장 가까운 대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家’의 공간이 일차적인 실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소쇄옹 양산보는 자신이 퇴거하여 물

러나 앉은 창평의 골짜기를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효의 공간’으로 구축하였다. 소쇄옹瀟灑翁이라 자호했던 양산보의 호에도 『소학』에서 제기하는 ‘쇄灑’가 자리하고 있음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양산보는 자신의 호를 따서 맑은 물이 흘러 세속의 찌거기를 씻어내는 공간을 ‘소쇄원瀟灑園’이라 명명하였다.

출사하지 않고 처사적 삶을 통해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우울을 달래가는 그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원근의 명사들은 소쇄원을 내방하여 양산보와 도의를 논하였다.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하서였다. 소쇄옹과 사촌동서 사이인 울산김씨 김백균金百鈞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서는 소쇄원을 찾아 은일과 소요의 흥취를 완상하던 차였지만, 인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웠다.⁶⁾ 그럴 때마다 하서는 소쇄원을 방문했다.⁷⁾

하서와 소쇄옹은 자연공간에서 은일과 소요의 자적인 삶을 향유하면서도 그들은 하나의 공통된 실천적 주제를 공유

5) 『西河集』卷16, 「瀟灑園梁公行狀」, “常謂人道莫大於孝, 而爲人子者不能其所當爲.”

6) 김인후의 인종에 대한 통곡과 울분은 『유소사』에 곡진하게 드러난다. 김경호, 「그리움의 분노: 김인후의 통곡」, 『감성의 유학』,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150-154쪽.

하고 있었다. 그것은 출사하지 않고 향리에 머물며 도학적 가치규범을 일상 속에서 내면화하는 ‘효’의 실천이다. 소쇄원은 효라는 감성을 구체화하고 서로 나누는 유가적 공감장이었다. 양산보의 많지 않은 글 가운데 하나가 ‘효에 관한 부賦’이다. 이 글은 『하서집』에 실려 있다.

아득한 천지 사이/지리至理는 두루 흘러/하물며 사람치고/본本을 찾지 않을까./제 몸이 중하다면/제 어디서 나왔으며/천금의 눈과 얼굴/어디서 이루어졌나./아! 아버지 어머니가/실로 나를 낳으셨네./노고도 그지없고/사랑도 그지 없네⁸⁾

하서는 이 부에 차운하여 ‘효부孝賦’로 화답하였다.

자애慈愛의 은택이 하도나 넓어/내 한 몸에 함초름 젖어 들었네./

생각하고 생각한들 어찌 다하며/말하고 또 말한들 이 어찌 끝나리까/… 때 마침 빗은 술이 익었거들랑/단란한 기쁜 자리 이바지하세./숙수菽水 비록 넉넉하진 못할지라도/산야山野의 한가로운 여흥 있으니/층층진 산 술을 마주 대하며/만 그루 동산 대를 어루만지며./여기서 노래하고 여기서 즐기고/만년을 받들면서 소요합시다./꼭 밖엿 것 기다려 봉양을 하자면/종신토록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리니./삶은 나의 순順이라면 죽음은 나의 편안/전전궁궁 더욱더 정녕히 하자꾸나.⁹⁾

소쇄옹의 ‘효’에 대한 감성을 잘 보여 주는 이 『효부孝賦』는 1552년, 그의 나이 49세의 저작이다. 김인후는 이 글에 화답하여 『효부차운孝賦次韻』을 지었다. 소쇄원을 구축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던 소쇄옹의 외종사촌 면앙정旼仰亭 송순宋

7) 김인후는 온전하지 못한 인종의 죽음에 대한 통탄으로 분노와 슬픔의 격정에 휩싸이는데, 그러한 심정은 조광조의 죽음에 대한 양산보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격정의 자연 치유 공간이 소쇄원이기도 하였다. 소쇄원의 풍광을 읊은 ‘마흔 여덟 개의 노래’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다. 『河西集』 卷5. 『瀟灑園四十八詠』

8) 『河西集』 「孝賦」

9) 『河西集』 「孝賦次韻」

純(1493~1582)은 두 사람의 효부를 본 후, “공(김인후)은 양군과 오랜 친구사이로 더욱이 두 자녀가 혼인을 하여 서로 정으로 친하고, 서로 덕으로 존경하여 왔다. 두 공의 창화倡和는 모두가 이룬의 아름다운 일일뿐더러, 학업을 서로 믿고 가볍으로 전한 면을 내가 두 공에서 취하여 경의를 드린다.”¹⁰⁾라는 발문을 지었다.

하서와 소쇄옹이 ‘효’를 매개로 한 부를 짓고 차운한 것은 두 사람이 사돈지간이면서도 도의지교를 나누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학적 실천윤리의 첫 번째인 ‘효의 실천’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유학의 도학적 성취는 곧 효의 실천에 있다. 이 점은 그들이 공유했던 감성의 지점이었다. 하서가 중앙의 관직을 마다하고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1543년)’으로 나간 것이나, 인종 승하 후 일체의 학술활동을 전폐하면서도 『효경간오孝經刊誤』의 발문을 짓는 것도 그의 ‘효’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엿보게 한다.

자연 치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효행의 공간이었기에 소쇄원 경영에는 김인후나 송순뿐만 아니라 인근의 명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광산김씨 가문의 인물들도 직간접적으로 관계된다. 김윤제를 비롯하여 김성원, 정철, 송정황, 이들과 인척을 맺고 있는 고경명, 김성원의 스승이자 식영정 주인 선산임씨 임억령 등도 소쇄원에 출입하며 공감의 접점을 형성한다.

이 효의 가르침은 대를 이어 소쇄원의 공간을 채워간다. 양산보를 잇는 양자징이 사관祠官에 임명되었다가 거창현감居昌縣監으로 벼슬에 나가게 되는 것도 그의 효행이 알려져 ‘효자’로 천거되었기 때문이다. 양자징을 이어 소쇄원을 경영하는 양천운梁千運의 경우, 『소학』과 『삼강행실』 등의 책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집안은 효도로 전해와 본래 토지의 문권이 없으니, 너희들은 각자 공경하고 삼가서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¹¹⁾고 경계하는 대목은 유교적 실천의 핵심도리인 효와 그 효를 행도行道 첫 번째로 삼는 ‘소학적 실천공

10) 『俛仰集』卷3, 「拔金厚之次梁彥鎮孝賦韻」.

11) 『陶谷集』卷16, 「司憲府監察梁公墓誌銘」, “公仍戒子姪曰, 吾家以孝相傳, 本無文券, 爾等各自祇飭, 無忝所生. 以小學三綱行實等書, 訓誨子女.”

간'으로 소쇄원이 기능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양자징의 아들 양천운의 묘지명을 지었던 도곡 이의현은 소쇄옹과 하서가 공감한 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다. “소쇄공이 일찍이 효부孝賦를 지었는데 글 뜻이 완곡하고 돈독하니, 하서河西가 그 운에 차운次韻하고 칭찬하였는바, 공의 모든 행실이 다 여기에서 근본하였다”¹²⁾ 소쇄원은 당대 장성-담양-창평-광주 인근의 인물들이 출입하는 ‘생성되어 가는 은일과 자적의 공간’이자 ‘효’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감성 공간이었다.

12) 『陶谷集』卷16, 「司憲府監察梁公墓誌銘」, “瀟灑公嘗作孝賦, 詞旨婉篤, 河西步其韻而稱道之, 公之諸行, 皆本於此云.”

2025년 산양회 운영 실적 평가

키워드는 “세 마리 토끼 잡아”

조직 강화, 재정 탄탄, 사업 내실

필암서원 산양회(이사장 김재수)는 2025년 한 해 동안 조직을 강화하고 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작년에 이룩한 두드러진 성과를 토대로, 활기찬 중흥시대 개막 2차 연도인 금년에도 회원의 열성어린 노력과 참여를 유도해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을 하나하나 순조롭게 추진해 왔다. 산양회가 이룩한 올해의 성과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면에서 회원 수가 작년 말 현재 87명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115명으로 32% 증가했다. 임원 구성은 10월 15일 자로 임기 만료된 2명의 감사(김병순, 고달석)에 대한 연임을 결정했고, 12월 27일 자로 임기 만료되는 5명의 이사 중 4명(양성모, 김용하, 박래호, 안동교)은 연임을 1명(김동하 전 서영대 교수)은 신규 선임을 결정했다. 회의는 총회 2회(정기 1회, 임시 1회), 이사회 3회(분기별 1회)를 각각 개최했다.

둘째, 재정 면에서 금년 예산(1회 추경 기준) 9천 5백만 원은 작년 결산액 7천 2백만 원보다 32% 늘어난 규모로 수입과 지출 모두 탄탄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산양회는 2025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익법인에 선정되어 우리 산양회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올해 (주)장덕금속, 김영풍 전 전교, 문영수 유도회 전남본부회장 등이 우리 법인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또 작년 1천만 원에 이어 올해 2천만 원을 지원해준 동아꿈나무재단(이사장 김병건)의 특별회비와 작년 3백만 원에 이어 올해 5백만 원을 지원해 준 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도유사 김상백)의 보조금도 내년부터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이다.

셋째, 목적사업 면에서는 3월 14일 나주 동신대 중앙도서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서 김인후 선생과 필암서원 재조명 학술대회’를 내실 있게 개최했다. 같은 시기에 『하서 도학과 문학』 제42호를 2,500부 발간하여 산양회원을 비롯한 지역 유림 및 유관 기관·단체, 도서관, 학교 등에 발송하고 필암

서원 방문객(특히 하서작은도서관 방문객)에게 연중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있다. 하반기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소식지 제43호 발간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집성관이 재개관하는 11월로 예정하고 있다.

필암서원의 쌍두마차 ‘하서작은도서관’ ‘장성선비학당’과 함께 문불여장성선도

3월 4일 시범운영에 들어간 ‘하서작은도서관’(관장 김양수)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최초의 작은도서관 운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 사이에 좋은 입소문이 났다. 이에 따라 경북 상주시 소재 도남서원(1606년 창건, 1676년 사액, 정몽주 등 9인의 유학자를 모신 서원) 사무국장이 하서도서관장에게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전달해오기도 했다. 산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자료 선행 학습부터 하도록 권유했는데 관계자가 찾아오면 친절히 알려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여러 신문·방송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일도 자주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실적 통계에 따르면 9개월간 도서관 총 방문객은 방문록 기재자를 기준으로 10월 말 현재 352명이고, 도서관 회원등록자는 174명이며, 도서 외부대출자는 5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열람과 대출이 가능한 보유 장서가 2,400여 권인데, 한국의 신간 도서와 중국의 고전 기증도서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도서는 한국십진분류법(KDC)에 순서대로 질서 있게 서가에 비치하되, 하서 김인후 선생 관련 도서와 필암서원 관련 도서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도서 및 자체 구입한 신간도서는 열람실과 인접한 2번 방 서가에 따로 비치해 누구라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노강 박래호 산양회 이사가 이끌어온 2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성선비학당’과,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지만 70여 년의 산양회 역사를 계승하는 ‘하서작은도서관’이 필암서원의 쌍두마차가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서도서관은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진일보한 운영에 들어

갈 예정이다.

울산김씨 대종회,

박래호·김용하 산앙회 이사에게 감사패

전남체전 성화 봉송 코스

필암서원 고유제 봉행

사상 최초로 장성군에서 열리는 제64회 전남체전(4. 18.~4. 21.)과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4. 30.~5. 2.)의 성화가 대회 개막 하루 전인 4월 17일 오전 백암산 국기단에서 채화되어 필암서원을 비롯한 예정된 코스를 돌아 봉송되었다.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은 이날 낮 양대체전의 무사안전 및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고유제를 봉행했다. 고유제에는 김상백 울산김씨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를 비롯하여 박래호 필암서원 수석집강 등 유림 대표 10여 명이 제관으로 참여했다. 성화 봉송 환영 모임에는 심민섭 장성군의회위원장, 김연수 군의원, 강대익 황룡면장이 자리를 함께했고 인근 마을 주민 30여 명도 큰 박수와 환호로 성화를 맞이하고 환송했다.

노강 박래호 필암서원 산앙회 이사가 4월 19일 서울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열린 울산김씨 대종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대종회 측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필암서원을 지키며 학문 연구와 제향 봉행에 앞장서왔을 뿐 아니라, 수 년 간 꾸준히 선비학당을 운영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한 노강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노강 선생은 수상 소감에서 “하서 선생이 우리 선조 정혜공 박수량 선생 비문 말미에 ‘족인’이라고 쓰신 것을 본 후로 태인 박씨와 울산 김씨는 일족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필암서원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김용하 산앙회 이사(전 광주교장, 현 용아 박용철 기념사업회 이사장)는 울산김씨 대종회가 모집한 제5회 종친문예작품 공모전에 제출한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필암서원이여 영원하라’는 제목의 시가 최우수작으로 뽑혀 이날 정기총회장에서 상을 받았다.

**박병호朴秉濤 필암서원 원장님,
본 산양회에 또 1,000만 원 후원**

박병호 원장님께서 지난 10월 16일 본 산양회에 1,000만 원을 입금하셨다고 전화해 주셨다. 『하서전집』 재번역 학술 대회, 필암서원 추향제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보행이 불편하여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소장하고 계신 책들도 마지막으로 모두 필암서원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겠다고 하셨다. 100세를 바라보시는 연세임에도 활력이 넘치는 정정한 음성으로 산양회보가 언제 간행되느냐고 물으시면서, 윤봉구尹鳳九 선생이 쓴 〈필암서원〉 초두변 현판글씨, 스승이신 하서선생 앞에서 〈고암 양자징선생〉이라는 〈선생〉 호칭을 쓰는 문제 등에 대해 글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차례 거금을 후원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거금을 본 산양회에 후원해 주신 것을 모든 산양회원들과 필암서원 관계자들을 대표해서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 고달석高達錫 감사 200만 원 후원

제봉 고경명선생을 선양하는 일에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장덕금속 고달석 사장님이 본 산양회에 2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달석 사장님은 본 산양회 감사로 계속 수고해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풍金泳豊 장성향교 전 전교,
본회에 100만 원 후원**

장성남문창의 맹주 오천공 김경수를 선양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풍 장성향교 전 전교님이 본 산양회에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영수文永洙 장성향교 전 전교,
본회에 100만 원 후원**

성균관 유도회 전라남도 본부회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문영수 장성향교 전 전교님이 본회에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알쓸신잡” 수준의 산양회 홈페이지

신속한 업데이트로 유익한 정보 쑥쑥

먼지 쌓이고 거미줄 쳐진 홈페이지와 달라

산양회 홈페이지에 가면 세계유산 필암서원과 하서 김인후 선생에 관한 온갖 정보와 뉴스를 만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어느 TV 프로그램 이름에서 ‘알쓸신잡’이란 줄임말의 유행이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작년에 구축한 필암서원 산양회의 공식 홈페이지가 알쓸신잡 수준의 유익한 홈페이지로 입소문 나고 있다. 조회 수가 자동 기록되는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조회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정 게시물은 수백 건의 조회 수가 기록돼 관리자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새 소식과 자료를 업로드 하는 기민한 서비스에 있다고 본다. 공사를 막론하고 기관단체의 홈페이지가 구축만 되어 있지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수년 전의 통계와 정보가 버젓이 올라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양회 홈페이지는 하서도서관장이 관리자를 맡아 사흘

이 멀다하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다. 최소한 먼지 쌓이고 거미줄 쳐진 홈페이지와는 결별하겠다는 신조로 운영하고 있다.

산양회 홈페이지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의 서원’ 9곳 가운데 중간쯤 되는 5번째로 구축한 홈페이지다. 하지만 소수서원·도산서원은 시청 사업소인 관리사무소가 제작하는 홈페이지여서, 병산서원·돈암서원·필암서원만 순수한 민간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다. 필암서원산양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piramsanang.or.kr이고 네이버 검색창에 ‘필암서원산양회’를 입력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PC나 노트북은 물론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산양회 홈페이지의 카테고리는 크게 나누어 ① 산양회 소개 ② 하서 김인후 선생 ③ 하서도서관 ④ 세계유산 필암서원 ⑤ 훈몽재·영귀서원 ⑥ 알림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양회 소개’에는 산양회 정관, 연혁, 조직도, 주요사업 등을 게재하고, ‘하서 김인후 선생’에서는 하서의 반백 년 생애, 하서가 소통한 네 명의 왕, 하서가 물려준 국가유산을 텍스트와 그림과 사진으로 구성해 소개하고 있다. ‘하서도서관’은 작은도서관 개요와 게시판 이외

에도 도서목록, 학술소식지(하서 문학과 도학) PDF파일, 논문과 단행본, 동영상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있다.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는 서원의 역사와 기능, 필암서원 개요, 필암서원의 위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관련 사진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었고, ‘훈몽재·영귀서원’에서도 순창과 곡성에 있는 두 곳의 연혁과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알림마당’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가 관리 소홀로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지지 않도록 관리자가 가장 신경 쓴 부문이다. 무엇보다도 ‘언론보도’와 ‘공지사항’을 통해 산양회원과 홈페이지 방문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최신 소식을 신속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A/S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 9월부터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필암서원 산양회는 작년에 구축한 홈페이지에 산양회원을 비롯한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하는 등 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용도 제고에 더욱 힘

쓸 계획이다. 특히 쌍방향 소통 확대 차원에서 알림마당이나 하서도서관 게시판의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2025년 필암서원 춘추향제 봉행

춘향제 초헌관에 홍성덕 전주대 교수

추향제 초헌관에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호남 유일의 문묘배향 유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과 그의 제자이자 사위인 고암 양자징의 학덕을 기리는 사액서원이자 국가 사적이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 1 곳이다. 유서 깊은 필암서원의 제향 중 하서 선생 탄생 515주년이 되는 을사년 춘향제는 3월 19일(음력 2월 20일) 오전에, 추향제는 10월 9일(음력 8월 18일) 오전에 필암서원 우동사와 청절당에서 봉행되었다. 여기에는 장성을 비롯한 광주·전남 유림 대표, 지역사회 기관·단체장과 공직자, 전국 각지에서 온 문중 관계자 등 13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 관례에 따라 필암서원 특유의 경서경독회를 시작으로 제향 봉행, 한글백일장 시상(추향제), 초헌관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고, 추향제 때는 제향을 마친 후 산양회 회원들만 따로 모여 임시 총회를 갖기도 했다.

춘향제 초헌관으로 초빙된 홍성덕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現 전주대 대외부총장)는 제향 봉행 후 『하서 김인후 선생 선양사업의 방향 과 제언』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하서 선생과 필암서원은 호남유학의 심장과 같다.”며 “하서 선생과 필암서원의 선양사업은 ‘장성’을 넘어 호남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장은 그동안 기호유학 속에서만 언급된 호남유학이 독자적인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호남의 공자’라 불린 하서 김인후 선생의 선양과 필암서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전라남.북도로 나뉘었지만 전라도, 호남의 전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전남의 필암서원과 전북의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다고 해서 두 지역의 유학 지형이 나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통의 계승과 학맥의 형성에서 호남유학은 근·현대에 특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하서 정신’이 들어 있다고 설파했다.

대표적인 위정척사를 외친 노사 기정

진 선생이나 도통의 계승을 강조하여 후학 양성에 노력한 간재 전주 선생 역시 하서 김인후 선생이 뿌려 놓은 호남유학의 계승자였다는 것이 홍 부총장의 지론이다. 그는 결론 삼아 “장성의 하서가 아닌 ‘호남의 공자’로서 하서의 위상이 바로 설 때 호남유학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홍성덕 교수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게이오대학 연구원,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동 대학 학생취업처장 및 기획처장, 대외부총장을 역임했다. 『국역 무성서원지』 등 30책의 저서와 『탈유교사회 유림네트워크 분석 시론』 등 50여 편의 논문이 있으며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조사 및 자료수집’ 등 60여 건의 연구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추향제 초헌관으로 초빙된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순천대 명예교수)은 하서 선생의 선양에 초점을 맞춘 춘향제 특강과는 결을 달리한 『장성 한말의병과 문정공의 문묘배향』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전개된 한말 장성 의병은 대체로 노사학과 유생이 중심이 된 전라도 최초의

의병 활동이자 호남 최대의 의병 항전이
었다”고 소개했다.

홍 원장은 1895년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자행되자 전국에 걸쳐 의병이 봉기했는데, 장성에서는 1896년 노사 기정진 선생의 손자인 송사 기우만이 기삼연, 김익중 등과 함께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다고 했다. 하지만 나주 의병과 연합하던 중 조정의 해산 명령이 내려지자 곧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도 보였다고 언급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에도 노사학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때도 기우만과 기삼연의 활동이 가장 돋보였다고 했다. 특히 기삼연이 주도한 호남창의회맹소는 결속력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회맹을 강조함으로써 장기항전의 기틀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1908년 일제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으로 말미암아 기삼연 의병장이 순국하는 등 희생이 컸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말 호남의병을 대표하는 장성의병의 유적 정비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홍 원장의 지론이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는 장성향교, 고산서원 등에는 기우만 선생과 기삼연 선생 관련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하고, 호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한 장소인 장성 수연산 석수암 일대를 전남의 대표적 한말의병 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장은 정조가 하서 선생의 문묘 배향 상소를 10여 차례 이상 받고도 오래도록 심사숙고한 것은 도학, 절의, 문장, 공적 등 배향 기준에 합당한지 따져보기 위해서였다고 언급했다. 결국 하서 선생의 도학의 깊이가 남다르다고 판단해 선생 한 분만 문묘에 종사했으며, 의義와 인仁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바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서 선생의 시詩 두 편에 하서 정신과 장성 의병 정신의 연계성이 녹아 있다고 보았다.

홍영기 원장은 전남대학교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사, 호남사학회 부회장과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서훈심사위원, 전남도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홍 원장은 한말 의병 연구 전문가로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한말 후기 의병』,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항쟁』 등 여러 저서를 냈다. 지리산권 문화 연구, 근현대 문화유산 등 호남한국학 연구에도 힘써 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청절당에서 열린 필암서원산양회 임시 총회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임기 만료되는 임원 7명(이사 5명, 감사 2명)의 연임과 신규 선정을 의결했다.

하서 선생 추모 백일장 앞두고 유적지 탐방

제23회 하서 김인후 선생 추모 백일장을 앞두고 관련 유적지를 사전에 탐방하는 행사가 5월 24일 필암서원을 비롯한 현장에서 열렸다. 장성군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5명이 참가한 사전 답사 성격의 이날 행사는 필암서원 학술회가 주관하고 장성군과 장성교육지원청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하서 선생 유적지 이외에도 아곡 박수량 선생의 백비, 망암 변이중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봉암서원, 호남의 큰 사찰인 백양사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역사 문화 및 생태 체험을 했다. 초등학생들로서는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르침과 세계유산 필암서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 백일장 참가 학생들은 이날 탐방

결과를 토대로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는 글을 지어 백일장에 응모했고, 제출된 작품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뽑았다. 심사 결과 진원초등학교 김하윤 외 6명의 학생 작품이 입상해 10월 9일 필암서원 추향제에서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필암서원 집행부 임원진, 장성군수와 간담회 개최

필암서원 및 울산김씨 문정공대종중 집행부 임원진은 5월 30일 김한중 장성군수 및 군청 관계관(문화교육과장 외 1명)과 간담회를 갖고 필암서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백 문정공 대종중 도유사를 비롯해 김양수 상임고문과 김재완 부도유사, 김진산 부도유사, 김영수 총무유사 등이 배석했다. 김상백 도유사는 이 자리에서 필암서원에 대한 장성군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서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선 대책 세 가지를 건의했다.

내년부터 장성에서도 과거시험 재현될까?

금년 5월 장성을 대표하는 유학자 노강 박래호 선생이 필암서원산양회에 하서 선생을 배출한 장성에서 조선 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자는 구두 제안을 해왔다. 이에 필암서원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논의를 거쳐 5월 30일 장성군수와 간담회 때 아래와 같은 요지의 건의를 했다. 장성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므로, 군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견학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 행사』 개최 건의(안)

호남 유일의 문묘 배향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조선 시대 과거시험 재현 행사를 장성군의 문화예술분야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함

『하서 전집』 재번역을 바라보는 지역언론의 시각

〈광주일보〉, “호남 정신 초석 다진 거인의 귀환”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이 올해 호남을 대표하는 조선 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자 문인인 세 거인들의 저작을 집대성한 『하서전집(김인후)』, 『눌재집(박상)』, 『석천시집(임억령)』을 완역 출간하자 한국학과 호남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지역 언론도 사상과 학문 분야에서 호남 정신의 원류를 형성한 유학자 3인의 원전을 앞다투어 소개했다.

지역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광주일보〉는 6월 23일자 지면에서 이번 총서 발간은 평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문 원전의 장벽을 낮추고, 세 학자의 사상과 문학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한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사회적 비판 기능 등 다채로운 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단순한 문헌 복원에 머물지 않고 정밀한 번역과 상세한 주석을 첨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번에 현대적 국어로 다시 번역되어 발간된 『하서전집河西全集』에 대해서는 “조선 성리학의 대가이자 호남 유학의 태산북두泰山北斗로 꼽히는 하서의 시문, 상소, 서간 등이 망라돼 있다. 학문적 성취는 물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선비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호남 정신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평을 했다. 『하서전집』은 지난 1987~1988년에 하서선생기념사업회가 최초로 국역하여 3책으로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30여 년 전의 국역이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세대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최고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어투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재번역 책을 발간한 것은 하서 선생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학교 도서관도 2025년 6월에 하서 김인후 선생의 문집인 『하서전집』을 도서관 1층에서 전시한 바 있다.

7월 10일 오후 장성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하서 김인후, 지성과 실천 - 하서전집 국역을 통해 본 학문과 사상의 현대적 가치’라는 주제로 ‘국역본 출간 기념 학술대회’도 열렸다. 이날 학술대

회는 김창호 원광대 교수를 비롯한 5명의 학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등 5명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국역 출간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현대적 언어로 되살림으로써 호남의 인문학적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서, 눌재, 석천 세 거인의 사상과 문학이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필암서원, 산양회 관계자

‘한국의 서원 학술포럼’ 참가

김상백 도유사 및 박래호 수석장의를 비롯한 필암서원과 필암서원산양회 임원 13명은 6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주최로 대전 전통나래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25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학술포럼>을 다녀왔다. ‘한국의 서원 인물자료 현황과 분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필암서원을 비롯한 도동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관계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대학교수의 주제발

표를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필암서원의 현황과 자료’를 연구한 권기중 한성대학교 교수는 하서 김인후와 고암 양자징 두 분의 배향 인물을 살펴본 후 1. 필암서원의 건립과 연혁 2. 필암서원의 구성원 2-1 필암서원 원임 구성과 특징 2-2 필암서원 원생과 특징 3. 필암서원의 교류 3-1 강학자료에 나타난 필암서원의 교류 현황 3-2 향사자료에 나타난 필암서원의 교류 현황 3-3 봉심록에 나타난 필암서원의 교류 현황 순으로 발표했다.

25년 만에 부활한

“울산김씨 청소년캠프” 운영

필암서원산양회 소속 하서도서관(관장 김양수)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8월 15일부터 1박 2일간 <울산김씨 학생과 학부모 여름캠프> 행사를 전국 각 지역에서 온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게 잘 마쳤다. 이번 행사는 울산김씨 대종회(회장 김상국)가 청소년 인성교육 차원의 청소년 캠프 운영을 하서도서관 측에 위탁함에 따라 대종회와 문정공 대종중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장성 필암서원과

순창 훈몽재 등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산양회의 김용하 이사, 김병기 이사, 김동하 교수가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었고, 훈몽재의 류승훈 훈장과 김재훈 박사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유서 깊은 현장 방문 때마다 적절한 문화해설을 해준 문화관광해설사(김승희, 김해순, 김미경)와 산양회, 필암서원, 문정공 대종중 관계자의 노고도 컸다. 이렇게 청소년 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 학생·학부모 등 참가자의 호응이 컸다. 특히 25년 만에 부활한 전국 단위 울산김씨 청소년 캠프가 바람직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세대 간 벽을 허무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했다는 좋은 평을 받았다. 하지만 캠프 운영 관계자 결산 워크숍 참석자들로부터 “매년 개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집약된 의견이 나왔다. 앞으로 대종회와 협의하여 격년 개최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촌과 수당 자손 40명,

선영과 필암서원 봉심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 김재열 삼성글로벌

사장, 김윤 삼양그룹회장, 김한 JB금융회장

참석

한편 2년에 한 차례씩 격년제로 호남 지역의 선영과 연고지를 찾고 있는 인촌 김성수 선생과 수당 김연수 선생 자손 40여 명이 올해에는 4월 26일 오후 버스 2대를 나누어 타고 필암서원을 방문했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13대손인 인촌·수당 형제 가문 자손들은 필암서원 우동사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고암 양자징 선생 신위를 봉심하는 예를 올렸다. 인촌 선생 집안에서는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과 김재열 삼성 글로벌리서치 사장(IOC위원), 수당 선생 집안에서는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 김한 前 JB금융지주회장 등이 참석했다. 필암서원 측에서는 김상백 문정공 대중중 도유사를 비롯한 종친과 노강 박래호 수석집강이 일행을 맞이하고 안내를 했다. 참석자들은 참배를 전후해 송의재(서재)에 새롭게 들어선 ‘하서작은도서관’을 눈여겨보았고 김양수 하서도서관장이 설립 배경과 실태를 설명하자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

도 했다. 서울에서 온 참석자들은 다음 날 호남 각지의 조상 묘소를 성묘한 후 귀경했다.

폭염 이기고 열린 남문창의 학술대회

장성문화원(원장 김봉수)은 당초 5월 8일 개최하기로 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된 남문창의 관련 학술대회를 주최 측인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회장 김봉수)와 협의하여 8월 27일 장성 문예회관소공연장에서 차질 없이 개최했다.

남도 의병사에 빛나는 장성 남문창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학술대회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 **기조 발표와 좌장** 김동하(전 서영대 교수), 남문창의와 오천 김경수 선생
- **주제 발표1** 김경태(전남대 역사교육과 교수), 「임진 정유왜란 시기 호남 의병사에서의 장성남문 창의의 의미」

- **주제 발표2** 김한신(충북대 사학과 교수), 「임진 전쟁기 장성남문 의병진의 전란 의식과 그 성격」
- **주제 발표3** 이경동(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오천 김경수의 학맥과 사상」

필암서원 관계자, 세계유산 등재 6주년 기념행사 참석

김상백 필암서원 및 문정공대종중 도유사를 비롯한 서원 관계자 9명은 9월 12일과 13일 함양 남계서원에서 열린 세계유산 등재 6주년 기념행사(주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 참석했다. 금년 행사에는 ‘한국의 서원’ 아홉 곳 중 개최지인 남계서원 다음으로 필암서원이 제일 많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 지난해 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한 서원답다는 호평을 받았다. 도유사 이외에 참석한 필암서원 관계자는 박래호 수석장의, 김만 원·공영갑·이충원 군집강, 김재완·김진산 부도유사, 김영수 총무유사, 김양수 상임고문 등이다.

이 중 김진산 부도유사는 9월 13일 열

린 ‘제향의례 특성 유림 발표회’에서 필암서원 별유사 자격으로 필암서원의 제례 특성을 발표했다. 9개 서원 제향의례 특성 발표회는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이 주관했다.

전국 9개 서원의 대표들이 함양으로 모인 세계유산 등재 6주년 기념행사는 남계서원 사당에서 고유제를 올린 다음, 남계서원에 모신 세 선현에 관한 학술 발표회와 9개 서원 제례행사 관련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로 이어졌다. 첫째 날인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함양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세계유산 남계서원에 모셔진 문헌공 일두 정여창 선생, 개암 강익 선생, 문간공 동계 정온 선생 세 선현의 학덕을 기리고 그 교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르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학술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주강 교수의 ‘문헌공 일두 정여창 선생의 삶을 통해 살펴본 올바른 효도’, 한국학대학원 김학수 교수의 ‘개암 강익과 남계서원-남계서원의 건립 운영과 함양지역 학술·문화 기반의 구축’, 경북대 박정민 교수의 ‘함양 남계서원의 동계 정온 제향과 그 의미’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 발표 후에는 한국선비 문화연구원 최석기 교수의 주재로 참석자들과 발표자들이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학술발표대회가 끝난 뒤 저녁에는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에서 주관하는 6주년 기념 국악 공연이 남계서원 명성당과 풍영루에서 열렸다. 세계유산의 품격에 걸맞은 전통음악의 울림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단 주관으로 9개 서원의 대표들이 각 서원 제례 행사의 특성을 발표했다. 이는 각 서원의 고유한 전통과 의례 문화를 서로 비교·이해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합동 연찬회 성격을 띤 의미 있는 발표회였다. 필암서원 김진산 별유사는 수년 전부터 제례 보존회장을 맡아 서원 제례 문화의 계승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이처럼 세계유산 등재 6주년 기념행사는 남계서원이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와 서원통합관리단이 주관하는 9개 서원 제례의식 발표회 외에도 서원 사진전, 전국 학생 서예 미술대회 및 백일장 출품 작품 전시회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막을 내렸다.

울산김씨 호남권 문중 인사, 울산김씨 본향 ‘울산’ 등 문화 탐방

장성과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에 사는 울산김씨 문중 인사 40여 명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울산과 경북 일대의 주요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2025년도 울산김씨 문중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장·중·계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중파 김상백 도유사가 대표 주관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문중 간의 상호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조상들의 얼과 학문이 깃든 서원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37명(장 10명, 중 12명 계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성(광주, 광양)에서 출발한 탐방단은 뿌리 찾기 차원에서 울산김씨의 본향인 울산광역시로 첫 방문지로 선택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도착하여 울산과 김경재 도유사를 비롯한 여러 종친의 따뜻한 환영 속에 오찬을 함께하며, 울산김씨의 완전체를 이루었다. 이후 국가정원 제2호인 태화강변을 산책하며 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동 중에는 김동하 교수의 <울산김씨

이야기)란 주제의 강의와 김병기 학장의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등 탐방지 해설>의 강의를 이어져 참가자에게 이번 문화 탐방의 의미와 각 탐방지의 역사적 배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에 도착해서는 서원 관계자들의 협조로 문중의 뜻을 담은 봉행 의식을 엄숙하게 진행하였으며, 다음 날 방문한 경주 옥산서원에서도 관계자들의 안내 속에 서원의 건축미와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의미를 살펴보고,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세계를 되새겼다.

행사의 마무리 자리에서 3파 도유사들은 “이번 문화 탐방은 울산김씨 문중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조들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전체 참석자들은 이번 탐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 탐방을 정례화하고, 내년에는 계파 주관으로 행사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울산김씨 문중 문화 탐방은 선조의 정신과 문화적 자취를 몸소 체험하며 문중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문중은 전통

의 뿌리를 지켜가며, 장·중·계와 울산과의 하나 된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울산김씨의 모습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계유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집성관 재개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군 필암서원 내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1일 집성관 1층 강당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장성군은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을 신청해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유물전시관·집성관 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2023년) △집성관 수선 공사(2024년)에 들어가 지난 9월 완공했다.

먼저 유물전시관은 영상, 음향, ‘미디어 파사드’, 이동형 ‘터치 스크린’ 등을 갖춘 ‘디지털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관람객들이 필암서원의 역사를 손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

집성관에는 교육, 공연, 관람, 체험, 독서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

성했다. 집성관 내 ‘청백리 전시실’과 ‘아카데미 자료관’도 청림의 현대적 의미를 알아보는 ‘청림관’, 장성아카데미 30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카데미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장성군은 이번 재개관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물전시관·집성관 활용에 나섰다. 그 시작은 11월 1일 필암서원 일원에서 열린 ‘필암서원 선비축제’다.

필암서원에 배향된 조선시대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하서와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축제는 △ 필암서원 탐색 △ ‘인문학 토크’ △ ‘선비체험 부스’로 구성했다.

‘필암서원 탐색’은 전통 선비 의상을 갖춰 입고 서원 곳곳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인문학 토크’ 시간에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 강연을 맡았다. ‘선비체험 부스’에선 선비들의 공부 방식을 체험하거나 인종 임금이 하서 선생에게 하사한 ‘묵죽도’ 목판을 직접 찍어보는 체험도 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축제 이후인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림문화 체험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11월 27일에는 필암서원 산앙회 주관 학술강연이 펼쳐진다.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23년 3월 10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 이배용 위원장 ‘인성교육과 서원’ 강연
- 2023년 3월 24일 김기현 전북대 교수 집성관에서 ‘정명(正名)의 정신’ 강연하고, ‘하서 도학과 문학’ 38호 간행
- 2023년 10월 26일 초헌관 노형욱 전광잔 헌직하고, 추향제 봉행하다
- 2023년 11월 30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김동하 서영대 교수 ‘하서와 채증길의 교우 양상’ 강연하고 ‘하서 도학과 문학’ 39호 간행
- 2024년 3월 25일 춘향제 봉행하고 초헌관 김영근 성균관 재단이사장 청절당에서 ‘효와 진정표(陳精表)’ 강연하다
- 2024년 3월 기세규 박사 ‘기소불옥 물시어인’의 진저한 의미를 찾아서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강연하고, ‘하서 도학과 문학’ 40호 간행
- 2024년 5월 10일 집성관에서 세계 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주최로 ‘세계 유산 등재 이후 지속가능한 서원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9개 서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서원 국내 학술포럼 열렸다
- 2024년 6월 27일 서울 발명회관에서 열린 ‘퇴계·하서 학술회의’에 산양회 임원진 10명 참석
- 2024년 9월 13일 산양회 홈페이지 시연한 다음 임시 개통하다
- 2024년 9월 26일 추향제 봉행하고, 초헌관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오늘에 필요한 주인정신’을 주제로 ‘호남사상 계승해 지역발전 지속해 나가자’고 강연하다
- 2024년 11월 29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신광조 공동대표가 ‘인의사상(홍익+사랑)의 부활만이 시대정신이요, 어지러운 한국사회의 나침반이다’ 강연하고, ‘하서 도학과 문학’ 41호 간행
- 2025년 3월 4일 ‘하서작은도서관’ 개관. 도서 4,500권 목록집 발간, 도서관장에 김양수 이사. 문화관광해설사 15명이 열람과 대출 편의 제공
- 2025년 3월 14일 나주 동신대에서 <하서 김인후와 장성 필암서원 재조명> 학술대회. 조상열 대동문화 대표 기조강연. 전남대 김정호, 박명희 교수 주제 발표. ‘하서 도학과 문학’ 42호 발간
- 2025년 3월 19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 홍성덕 전주대 교수 ‘하서 김인후 선양 사업의 방향과 제언’ 강연
- 2025년 5월 30일 청절당에서 장성군수와 필암서원 임원들 필암서원 지원 간담회
- 2025년 6월 27일 대전 전통나래관에서 열린 ‘한국의 서원 학술포럼’ 13명 참석
- 2025년 7월 10일 한국학호남진흥원 『하서전집』 재번역 간행 기념 학술대회에서 <하서 김인후, 지성과 실천 – 하서 국역을 통해 본 학문과 사상의 현대적 가치>를 주제로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림
- 2025년 8월 15~16일 대중회의의 위탁을 받아 하서작은도서관이 25년만에 부활한 ‘울산김씨 청소년 캠프’ 시행. 김병기, 김동하, 김용하 이사들이 열강함
- 2025년 9월 12일 함양남계서원에서 열린 ‘세계 유산 등재 6주년 기념행사’에 박래호 수석장 등 8명 참석함
- 2025년 10월 9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장성을 빛낸 한국의병’ 강연
- 2025년 11월 27일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김정호 교수 <하서와 소쇄옹의 효의 공감장, 소쇄원>을 주제로 집성관에서 강연 ‘하서 도학과 문학’ 43호 발간

설후행 雪後行

천지간에 불우한 시옹이 있어
얼음길을 교만스레 홀로 걸누나
드넓은 들판 희고 희어 끝이 없는데
아득한 만 리 은을 펼쳐 놓은 듯
나귀 발굽 옥구슬을 짓밟아가니
맑고 텅 빈 물결이 출렁이는 듯
소쇄한 아취는 진세를 벗어나니
손에 채찍을 휘두르며 유유히 가네
거세 바람 몰아쳐 천지를 흔들어도
찬 기운 몸에 스미는 줄 전혀 모르누나
흥에 겨워 두어 시구 한가롭게 읊조리니
세상만사 다만 하찮을 따름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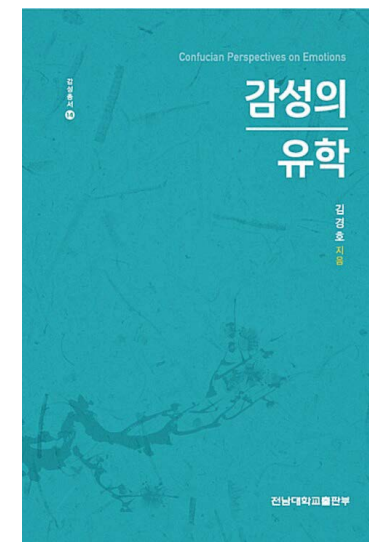
詩翁落魄天地間
偃蹇獨向冰雪途
平原皚皚爲無際
蒼茫萬里如銀鋪
驪蹄踏破瓊瑤地
正似蕩漾清虛無
蕭然高趣出塵間
手揮健鞭行于于
凶風頑熈攪宇宙
不覺寒氣來侵膚
乘興閒吟數句詩
世上萬事徒區區

* 이 시에서 ‘불우한 시옹’은 하서 자신을 뜻한다. 요순지치를 꿈꾸었으나 험악한 세상을 만나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천지를 흔들어도 흰 눈이 쌓인 아득한 벌판을 홀로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에서 하서의 결연한 삶의 의지와 결단을 읽을 수 있다. 찬 기운이 스미는 줄도 모르고 흥에 겨워 시를 읊조리며 눈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모습은 바로 하서가 걸어간 길이기도 하다. 현석 박세채는 “목숨을 걸고 도를 지키며 천명을 받아들여 인을 두터이 하려는 지취(志趣)를 지녔다.”고 했다. 이런 절창이 별로 논의되지 않았음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편집자 김재수〉

감성의 유학

김경호 지음



감성의 유학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에서 탐색하고 있는 유학감성론은 사실 규범성과 개성의 결합이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과제 영역을 향하고 있다. 이 미답의 철학적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유학감성론은 이성에 근거한 객관주의(objectivism)를 넘어서야 할 뿐만 아니라, 감성을 소환할 때 봉착하게 되는 정서주의(emotivism)의 한계 또한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멀고 귀척지는 어디가 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탐구해야 할 대상은 감성의 영역만도 아니고, 감성의 대척점에 있다고 상정되어온 이성의 영역만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감성과 이성으로 분할될 수 없는 온전한 삶의 세계, 곧 온-경험의 세계가 감성의 유학을 통해 탐구해야 할 영역이다. 유학이 표방하는 도덕규범의 형식과 내용을 감성이라는 개성적인 생활세계의 일상성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횡단적(transversal)이며 상관적인 사유(correlative thinking)를 통해 감성과 유학의 지평을 혼성하는 철학적 기획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책머리에서